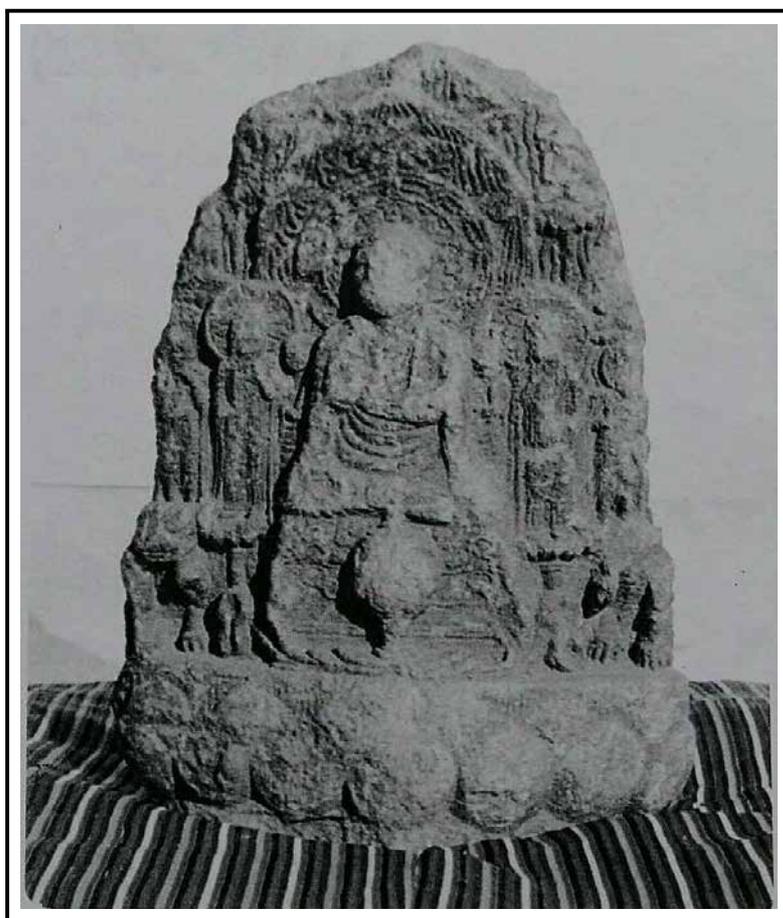


# 郷土史料

## 第2集



社壇  
法人

鳥致院文化院

# 序 文

1985年の 한 해는 燕岐郡 遺蹟調査를 爲하여 劃期的인 해였다고 하겠읍니다.

燕岐郡 錦南面 錦江流域에서 支石墓 11基와 男根石 1基 그리고 優秀한 石製幢竿支柱, 悔隱大師의 浮屠와 浮屠碑를 發見하였으며 燕岐郡 南面 錦江流域에서 立石 2基를 發見하였기 때문입니다.

結局 이와 같은 새로운 發見과 調査로 말미암아 燕岐郡으로서 錦江流域에 巨石文化의 遺跡群을 確認한 셈이니 이제까지의 山城調査에 머물렀던 燕岐郡의 遺跡調査가 史前으로 遡及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發見과 調査를 契機로 하고 이제까지의 發見과 調査를 한데 묶어 鳥致院文化院의 〈郷土史料 第 2輯〉으로 이 報告書를 刊行한 것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報告書가 나오기까지 힘써 주신 여러분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며 特히 이 報告書를 爲하여 調査하고 原稿作成하여 編著하신 金在鵬 先生님과 本院 鄭興錫 局長님의 勞苦에 對하여 感謝를 드립니다.

이 報告書를 爲하여 準備한 圖面과 寫眞 또한 적지 않지만 그것은 朝鮮朝時代의 文化遺蹟과 함께 「燕岐郡 文化財大觀」이라하여 따로 刊行할 것을 企劃하고 있는 바 보다 좋은 文化財大觀을 刊行할 수 있도록 燕岐郡의 文化遺蹟에 對한 資料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는 저희 文化院으로 보내 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겠습니다.

1985년 10월 일

鳥致院 文化院長 李 基 鳳

# 目 次

·松龍里의 支石墓·····	5	·羅 城·····	49
·朴山里의 支石墓·····	7	·石積祭壇·····	51
·鳳起里의 뒷고개의 支石墓·····	9	·高山山城下의 「모수굴」·····	53
·鳳起里의 洞口的 支石墓·····	11	·婢岩寺·····	55
·新村里 後山の 支石墓·····	13	·婢岩寺의 三層石塔·····	57
·長在里의 支石墓·····	15	·蓮花寺·····	59
·大夫里의 立石·····	17	·雲霑寺址·····	61
·月山里의 立石·····	19	·松龍里의 磨崖佛·····	63
·新村里의 男根石·····	21	·大谷里의 四層石塔·····	65
·葛雲里의 佛面立石·····	23	·栗寺址·····	67
·黃中山城·····	25	·正左山·····	69
·出東山城·····	27	·砂器所·····	71
·唐山城·····	29	·御書閣·····	73
·元師山城·····	31	·合湖書院·····	75
·高麗山城(西城)·····	33	·鼓山 任憲晦의 墳墓·····	77
·高麗山城(東城)·····	35	·洪大容先考 櫟墓碑·····	79
·高山山城·····	37	·支石墓와 卵生神話를 中心으로	81
·金伊城·····	39	·燕岐郡의 諸山城과 周留城에	99
·李 城·····	41	대하여·····	
·鵲 城·····	43	·鳥致院 瑞光庵 眞牟氏三尊石佛	107
·鄉校 뒤 土城址·····	45	碑像에 대하여·····	
·龍子山城(望京台山城)·····	47		



# 1. 松龍里의 支石墓

1. 所 在 地 : 燕岐郡 東面 松龍里

2. 關 係 資 料

3. 傳 說

두 개의 支石墓의 巨大한 蓋石을 건너편 말봉산에서 장수가 던져서 여기에 놓았다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 革 및 事 蹟

燕岐郡 東面에서 發見된 唯一한 先史遺物이다. 그리고 이것은 美湖川과 關係있는 美湖川 沿邊의 支石墓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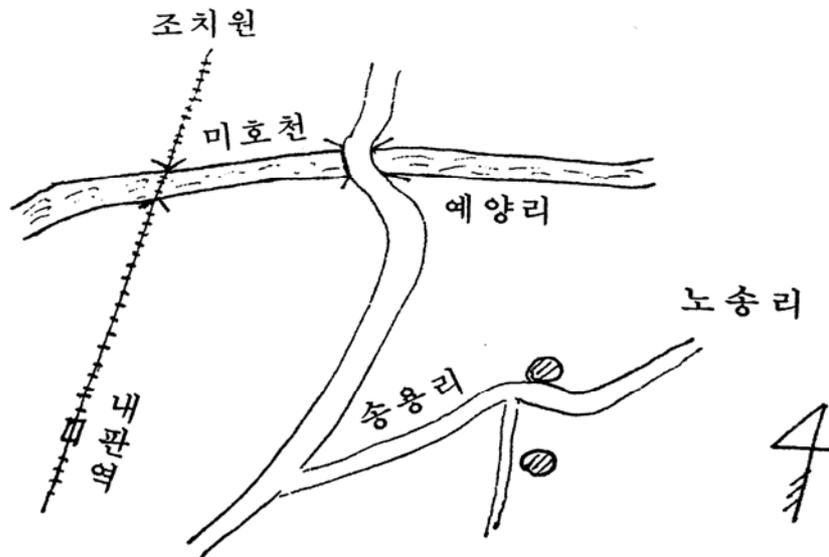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東面 松龍里에서 老松里로 넘어가는 境界의 高갯마루 길가 右側에 하나가 있고 길가 右側의 약간 높은 臺地위에 또 하나가 있다. 둘이 모두 南方式으로 蓋石의 크기는 길가에 있는 것은 길이 220cm, 폭 120cm, 두께 40cm이며, 臺地위의 것은 거의 둥글게 보이며 길이와 폭이 150cm, 두께 50cm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臺紙위의 것은 保存狀態가 良好하여 거의 原型을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고개 길가에 있는 것은 길을 넓히느라고 一帶를 破壞치고 磐石도 半破된 채 버려져 있다. 破損된 盤石아래 地層에서 4개의 異色磨製石 鏃이 發見되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臺地 위의 것은 保存에 별 問題가 없겠지만 고개 길가의 것은 이미 半破된 것이기는 하나 臺地위로 옮겨서 保存할 필요가 있다.

## 10. 參 考 文 獻

## 2. 朴山里的 支石墓

1. 所 在 地 : 燕岐郡 錦南面 朴山里

2. 關 係 資 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錦江邊의 支石墓로서 學術的인 價値가 큰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舊石器文化 遺跡이 發見되지 않은 燕岐郡의 史前文化 遺跡으로서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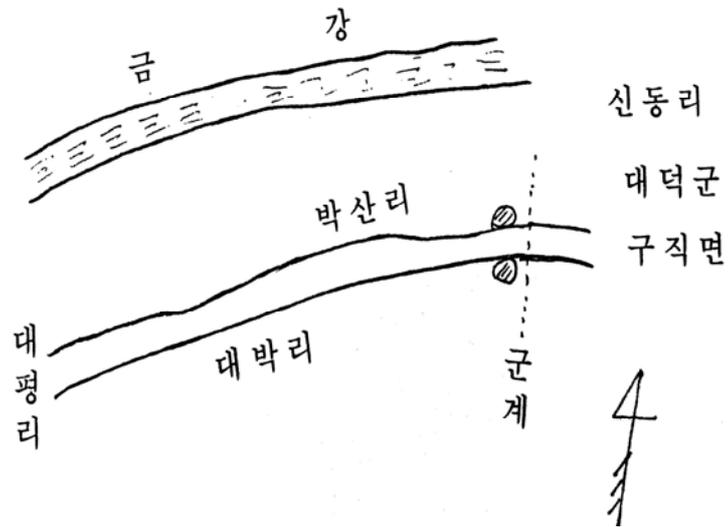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錦南面 朴山里에서 大德郡 九則面 新東里로 넘어가는 高갯마루의 左右에 2基가 있다. 左의 것은 길이 240cm, 폭 220cm, 두께 30cm, 右의 것은 길이 340cm, 폭 247cm, 두께 30cm이다. 2基가 300cm의 거리로 떨어져 正南北線을 긋고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保存狀態는 良好한 편이었으나 最近 이 길을 폭 16m의 大路로 擴張하는 공사로 인하여 右의 것은 完全破壞遺棄되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2基중에서 殘存한 1基도 긴급히 옮겨서 保存하지 않으면 破壞 遺棄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3. 鳳起里 뒷고개의 支石墓

1. 所 在 地 : 燕岐郡 錦南面 鳳起里 (뒷고개)

2. 關 係 資 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 革 및 事 蹟

錦江을 굽어보는 臺地위에 4基가 群을 이루고 있다. 史前遺蹟으로써 價値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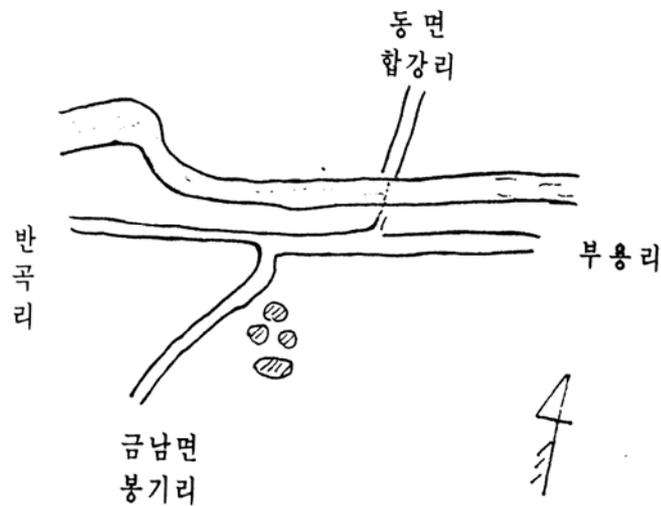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燕岐郡 東面 合江里의 錦江 合江나루를 건너 鳳起里 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 중턱에 4基가 群을 이루고 있다. 즉 그 位置는 錦江의 흐름에서 200m 떨어진 고갯길 중턱이다. 4基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길이 383cm, 폭 176cm, 두께 30cm이며, 가장 작은 것은 길이 140cm, 폭 100cm, 두께 50cm이다. 그리고 나머지 2基는 길이 200cm, 폭 170cm, 두께 30cm의 것과 길이 90cm, 두께 40cm의 것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4基의 支石墓는 가장 큰 것을 위로하고 서로 4m 또는 5m로 떨어져서 錦江邊에 支石墓群을 이루고 있다. 保存狀態는 4基중 가장 큰 것은 基盤이 破해쳐져 內部가 들여다 보이는데 盜掘의 흔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基 他 3基의 保存狀態에는 異狀이 없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錦江을 굽어보는 고갯길 중턱에 位置하고 있는 이 4基의 조금만 支石墓群의 文化財로써의 價値가 莫大한 것이다. 그런만치 現在 밭둑의 雜草속에 묻힌 채 放置되어 있는 것을 雜草를 除去하고 保存策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4. 鳳起里 洞口的 支石墓

1. 所 在 地 : 燕岐郡 錦南面 鳳起里 (洞口)

2. 關 係 資 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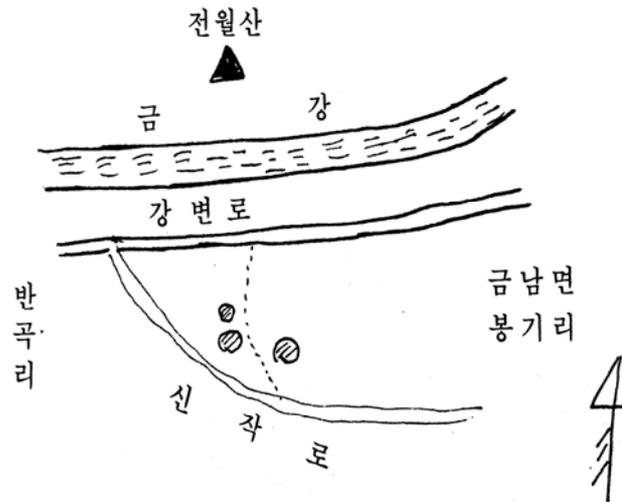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錦江邊에서 鳳起里로 들어서는 洞口밖의 조그만 고갯길에 左右로 南方式 支石墓 4基가 있다. 錦江까지는 약 200m의 거리이며 現在는 밭으로 耕作하고 있지만 最近까지 조그만 臺紙로 남아 있었던 산끝이다. 規模는 錦江을 앞으로 보고 左邊 北에 있는 것은 길이 280cm, 폭 240cm, 두께는 70cm, 左邊 南에 있는 것은 길이 260cm, 폭 220cm, 두께 60cm, 右邊에 떨어져 있는 2기는 길이 260cm, 폭 230cm, 두께 30cm이다. 左邊 2基는 錦江건너 戰月山上峯을 前案으로 하고 左邊 南의 것과 右邊의 것은 서로 正東西線上에 位置하고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4基중에서 破壞된 것은 없다. 그러나 밭을 떠서 耕作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 甚히 不安한 狀態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이 4基도 現在의 位置가 甚히 不安하니 發掘과 함께 移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破壞되어 버려질 憂려가 있다

## 10. 參 考 文 獻

## 5. 新村里 後山の 支石墓

1. 所在地：燕岐郡 錦南面 新村里(後山)

(錦南國民學校 後山上)

2. 關係資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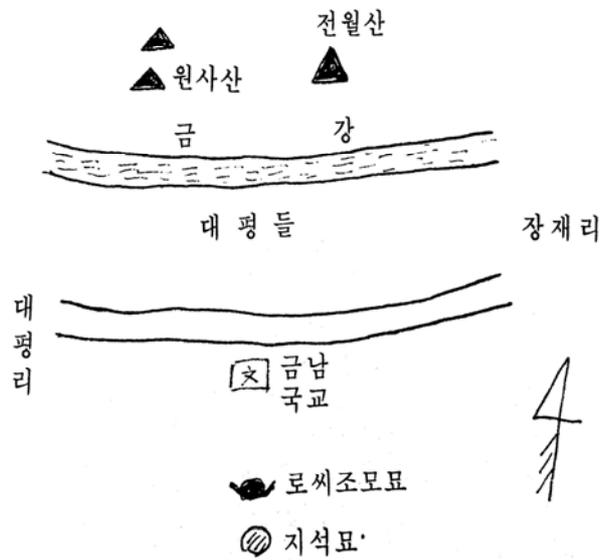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錦南面 新村里 錦南國民學校 後山の 比較的 높은 臺地위에 있는 1基로써 南方式이다. 크기는 南北이 150cm, 東西가 160cm로 거의 둥글게 보인다. 現在는 錦江까지 4~500m 距離로 굽어보는 位置이지만 築造 당시에는 錦江과의 距離가 2~300m 쯤으로 가까웠을 것이다. 원래는 2基以上이 있었던 것인지 확실치 않다. 人家가 가깝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破壞되고 1基만이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支石墓는 現在 新村里 居住 盧某氏 祖母의 墳墓 바로 뒤에 박혀 있어서 支石墓 같이 보이지 않고 自然石 같이 보이지만 支石墓에 틀림 없다. 이것은 1985년 6월에 忠南大學校 成周鐸 教授와 同途하여 確認한 것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이 1基는 現在 盤石이 흙속에 박혀서 盤石위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保存狀態는 良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6. 長在里의 支石墓

1. 所 在 地 : 燕岐郡 錦南面 長在里

2. 關 係 資 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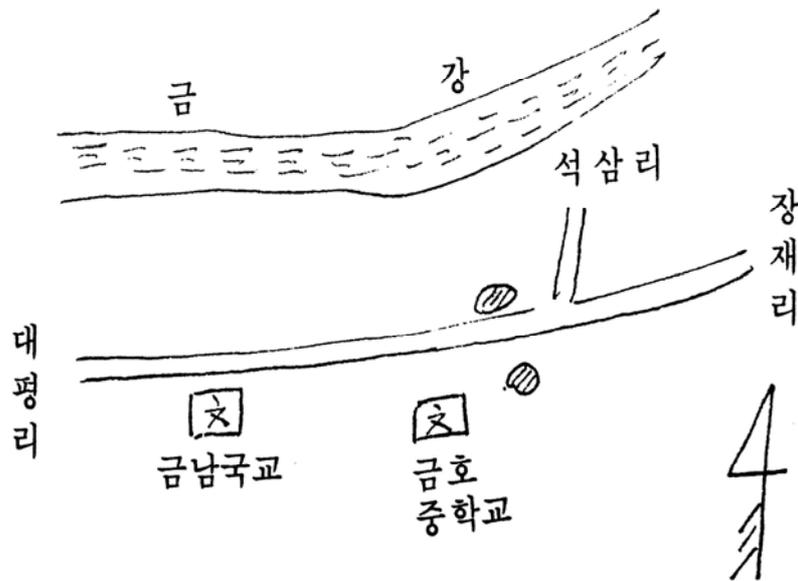
2基 중 1基는 公州師範大學에 移轉하여 保存하고 1基는 半破된 채 논두렁 길가에 버려져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長在里 마을 앞 길가에 左右로 2基가 있었지만 道路擴張으로 破壞 遺失될 것을 念慮하여 1基는 公州師範大學에 移轉하여 博物館 앞에 保存하고 있다. 나머지 1基는 現在 큰 길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길가에 있지만 半破되어 原形을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半破된 채 버려진 1基도 公州師範大學에 移轉하여 保存하는 편이 좋겠다. 멀지않아 完全破壞 遺失될 念慮가 있기 때문이다.

## 10. 參 考 文 獻

## 7. 大夫里의 立石

1. 所 在 地 : 燕岐郡 全義面 大夫里

2. 關 係 資 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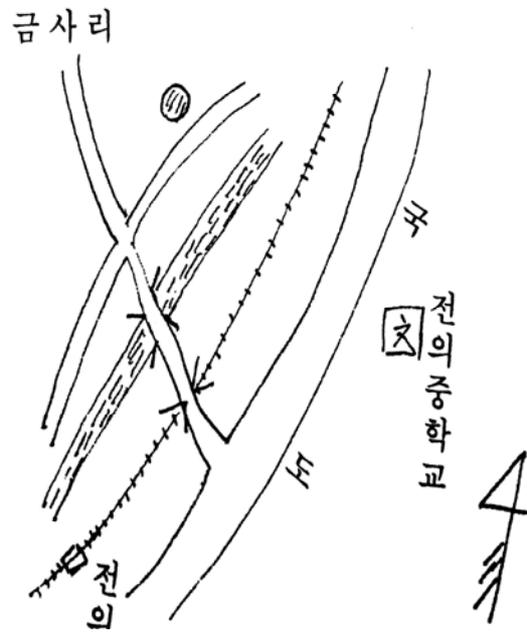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全義中學校 건너편의 大夫里로 들어서는 길가 발쪽에 느티나무의 숲을 背景으로 하여 서 있다. 높이 350cm, 둘레 180cm, 둘레에는 흰 새끼줄이 쳐 있다. 이 선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 못 낳는 부인과 머슴애 낳기를 원하는 부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立石의 앞을 내가 흐르고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比較的 保存이 잘 되어 原型을 維持하고 있다. 이 立石은 全義 「덕고개」 즉 「독고개」의 어구에 있으니, 「독고개」는 이 立石에 연유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덕고개」는 「독고개」의 音轉일 것이니 言語學的으로 注目된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 10. 參 考 文 獻

## 8. 月山里의 입석

1. 所在地：燕岐郡 南面 月山里

2. 關係資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6. 遺蹟現況 및 特徵

南面 月山里 마을 가운데 臺地위에 서 있다. 높이는 170cm 둘레는 120cm 새끼는 매 있지 않다. 現在 마을앞 길을 擴張하느라고 입석의 바로 밑을 뚫기 때문에 約 70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 立石의 길건너를 바로 錦江이 흐르고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마을 앞 큰 길가에 기우러진 채 放置해 있는 狀態이기 때문에 몹시 不安하다. 部落民도 여기 대하여 關心이 없는 것 같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現在의 場所에서 조금 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 立石은 錦江의 흐름 바로 위 臺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立石과 물과의 깊은 關連을 보여주는 좋은 例로 보인다.

## 10. 參 考 文 獻

## 9. 新村里의 男根石

1. 所在地：燕岐郡 錦男面 新村里

2. 關係資料

3. 傳 說

이 男根石과 함께 옆에 男根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어서 이 男根石과 男根井을 위함으로써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인은 아이를 갖게 되고 남자애를 못가진 부인은 남자애를 갖게 된다고 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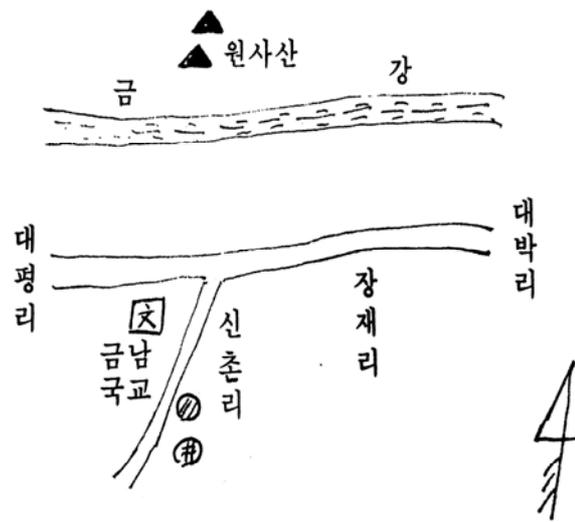
5. 沿革 및 事蹟

6. 遺蹟現況 및 特徵

最近까지 2개의 男根石이 있었으나 하나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 남은 男根石은 높이 80cm, 둘레 8cm, 30cm 가량이 땅에 박혀 있다. 이 男根石 옆에 우물이 있다. 그리고 좀 멀리 대평들 건너로 錦江이 흐르고 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10. 參 考 文 獻

## 10. 葛雲里의 佛面立石

1. 所在地：燕岐郡 南面 葛雲里

2. 關係資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燕岐郡 洪淳珪 財務課長에 의하여 비로소 그 存在가 알려진 稀貴한 石佛像이며 稀貴한 立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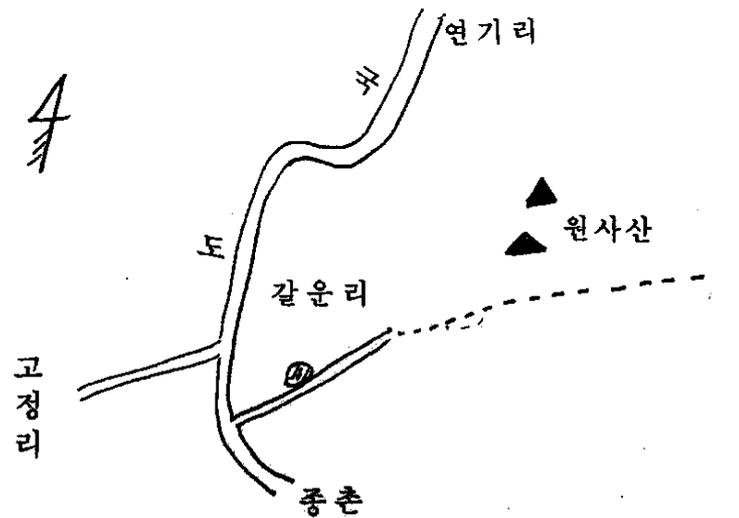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國道에서 南面 葛雲里로 들어서 마을洞口的 道路가에 서 있는 선돌 (立石)인데 上部에는 佛面이 陽刻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石佛像으로 볼 것인가 立石으로 볼 것인가 問題가 된다. 立石으로 보자니 佛面이고 石佛像으로 보자니 全体는 그대로 立石이기 때문이다. 稀貴한 石佛像이며 稀貴한 立石이다. 高는 180cm, 둘레는 160cm로써 사람의 키를 웃돈다. 길가 左右로 2基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치 못하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판 例가 없는 立石이며 右佛像인데 保存狀態는 良好하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 10. 參 考 文 獻

# 11. 黃 中 山 城

1. 所 在 地 : 燕岐郡 東面 鳴鶴里(황우재)

2. 關 係 資 料

燕岐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 革 및 事 蹟

燕岐縣은 本百濟時代에 豆仍只縣으로써 未谷縣(懷人)과 함께 一牟山郡(文義)의 屬縣이었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錦江 東쪽의 땅으로써 燕岐 - 文義 - 懷人으로 이어져서 報恩에 있었던 新羅의 三年山城과 對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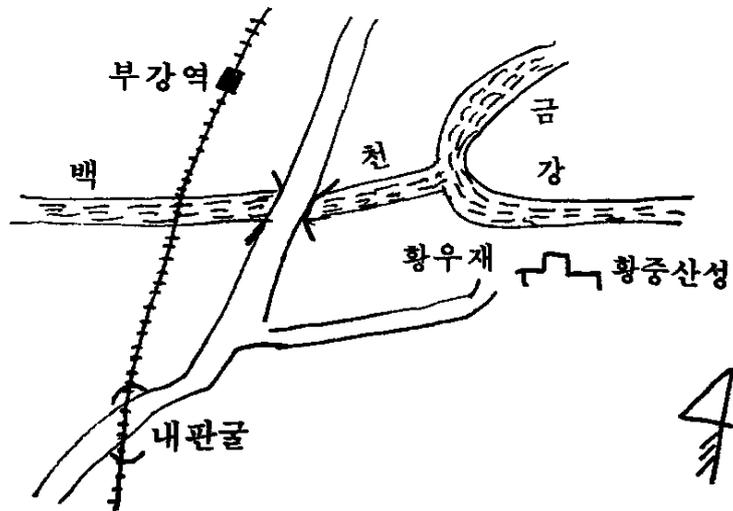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標高 200m의 山頂에 構築한 山城으로써 土築과 土石築을 겸하였다. 周長 321m, 高 2~5m, 幅 2~3m 로써 이 山城의 西쪽은 斷崖이며 그 밑이 錦江의 難所로 유명한 龍漕이다. 그리고 東쪽에는 懷人 - 文意 - 芙江 - 燕岐를 잇는 街道가 通하고 있다. 이 山城에서 白川上流에 位置한 猪山城 뿐 아니라 芙江의 구들기山城, 文谷里뒤의 老姑山城이 건너다 보인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山城의 保存狀態는 良好하며 城中에는 百濟系統의 것으로 보이는 土器片이 깔려 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 10. 參 考 文 獻

## 12. 出 東 山 城

1. 所 在 地 : 燕岐郡 東面 龍湖里(부래미)

2. 關 係 資 料

이 山城에 대하여서는 이제까지 전혀 아는이가 없었던 것을 筆者가 踏査하여 비로소 山城임을 確認한 것이며 다시 1985년 6월 6일 忠南大學校 成周鐸·崔權默 教授와 3인이 同途하여 再 確認한 것이다.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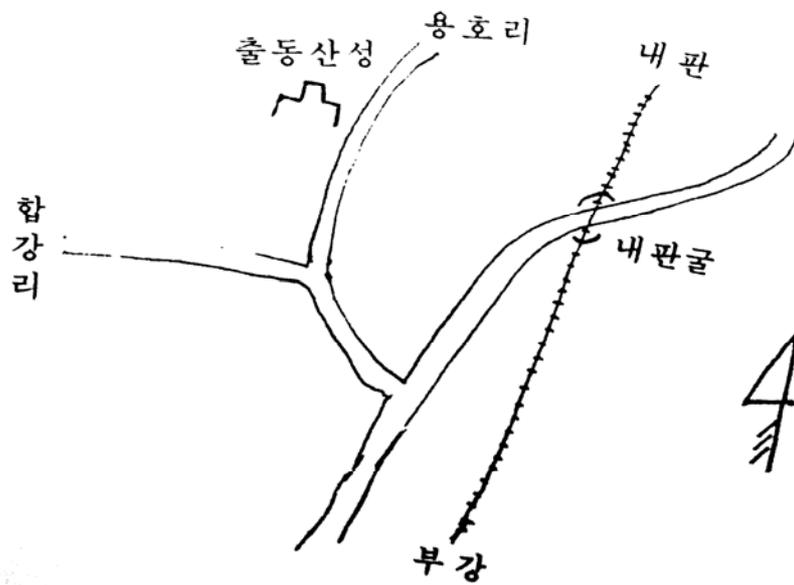
앞서 黃中山城條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이 山城은 黃中山城과 함께 懷仁 - 文義 - 美江 - 燕岐를 잇는 錦江東의 本百濟時代 一牟山郡의 領域을 알고 沿革을 아는데 關鍵이 되는 重要的 山城이다. 黃中山城에서는 唐山城을 直接 眺望할 수 없지만 이 出東山城에서는 南으로 黃中山城을 그리고 北으로 唐山城을 一目으로 眺望할 수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180m의 가파른 高地頂上部를 각아서 斷崖을 만든 典型的인 土城이다. 西南方의 至近한 距離에 錦江과 美湖川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北方으로는 唐山城과 唐山城下의 東津나루(美湖川)가 一見으로 眺望된다. 懷人 - 文義 - 美江 - 燕岐를 잇는 一牟山郡以來의 舊街道는 이 山城의 直下에 通하고 있다. 周 700m, 높이 6~8m, 城內의 面積은 1,000坪이 넘을 것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保存狀態는 良好한 편이나 아카시아 등의 雜木이 茂盛해서 城內에 들어설 수 없는 狀態이다. 山城을 保護하기 위하여 雜木의 除去가 時急하다고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13. 唐山城

1. 所在地：燕岐郡 南面 燕岐里

2. 關係資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燕岐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城山」이라고 하였으니 俗稱 「성재」로 불리웠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산」은 「堂山」으로써 佛堂 또는 祭堂 등에 由來한 名稱으로 보인다. 이 당산에는 山城址와 함께 寺址가 많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燕岐縣의 鎭山이며 美湖川 下流의 江邊에 聳은 唐山의 2개 頂上 봉우리를 連結하여 構築한 典型的인 百濟山城이다. 標高가 150m 이니 높은 山城은 아니지만 淸州 - 鎭川 으로 이어진 美湖平野의 끝으로 美湖川 강가에 位置했기 때문에 높게 보인다.

周長은 1,430m, 高 2~8m, 幅 2m의 石築이며 南으로는 東津 건너의 出東山城을 眺望하고 東으로는 父母山城과 멀리 上黨山城을 眺望하고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城內에는 三國時代의 土器片이 散在하고 高麗時代의 瓦片과 土器片도 볼 수 있다. 그리고 〈全岐〉라고 陽刻이 찍힌 瓦片과 〈林〉자를 陽刻한 瓦片을 收拾한 일이 있다. 그리고 數年前에는 金銅佛象이 出現한 일도 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이 山城內에는 風水說에 의하여 盜葬한 墳墓가 어지럽게 들어 서 있다. 그리고 들리는 바로는 國有地로 傳來해 오던 것을 十數年前에 個人에게 拂下했다고 하지만 國有로 還元하여 設備를 갖추면 훌륭한 公園이 되고 休養地가 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13. 元 師 山 城

1. 所 在 地 : 燕岐郡 南面 陽化里

2. 關 係 資 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燕岐誌

高麗史 高麗史節要

3. 傳 說

忠烈王 十七年 哈丹賊侵入 때의 駐軍之地로써 韓希愈, 金忻 등 高麗의 諸將들이 哈丹賊을 殲滅시킨 山城이라는 傳說이 있다. 이것을 「燕岐大捷」 이라고 한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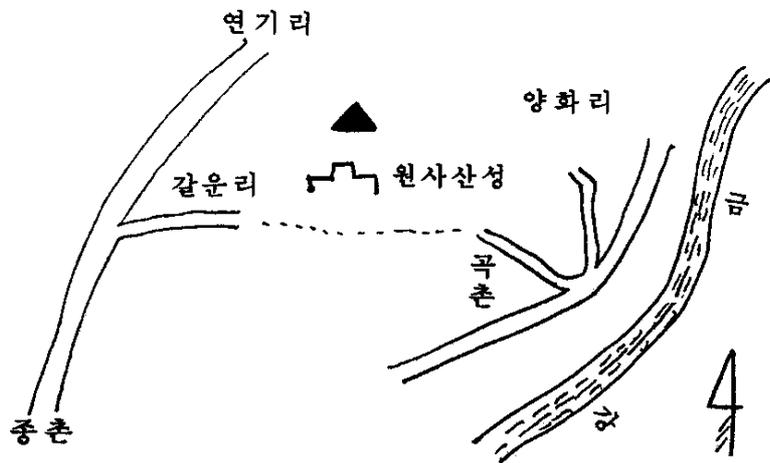
5. 沿革 및 事蹟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 山城은 거의 圓錐形으로 聳은 元師山の 六分線을 圍繞하며 石壘를 구축한 特異한 山城이다. 元師山 自体가 圓錐形으로 높이 聳아서 가파르는데 石壘를 쌓았기 때문에 더욱 가파른 石城이 된 것이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8. 略 圖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10. 參 考 文 獻

## 15. 高麗山城(西城)

1. 所在地：燕岐郡 全義面 高登里

2. 關係資料

全城誌

燕岐誌

3. 傳 說

高登里 「아야목」에 대하여 옛날 이山城에서 싸우던 병사들이山城에 샘이 없는 고로 목이 타 산아래로 내려와 물을 마시며 「아야목」이라고 해서 마을 이름을 「아야목」이라고 하였다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全義北端이며 天安南端의 境界에 位置한 이山城을 高麗山城이라고 하지만 實地는 高句麗의 山城으로써 長壽王이 거느린 高句麗軍의 攻擊을 받아 漢城王都가 沒落하고 蓋鹵王이 殺害된 後 文周王은 熊津에 遷度하였다. 高句麗軍은 百濟軍을 攻擊하여 稷山·天安까지를 占領하고 天安南端에 쌓은 山城이 이山城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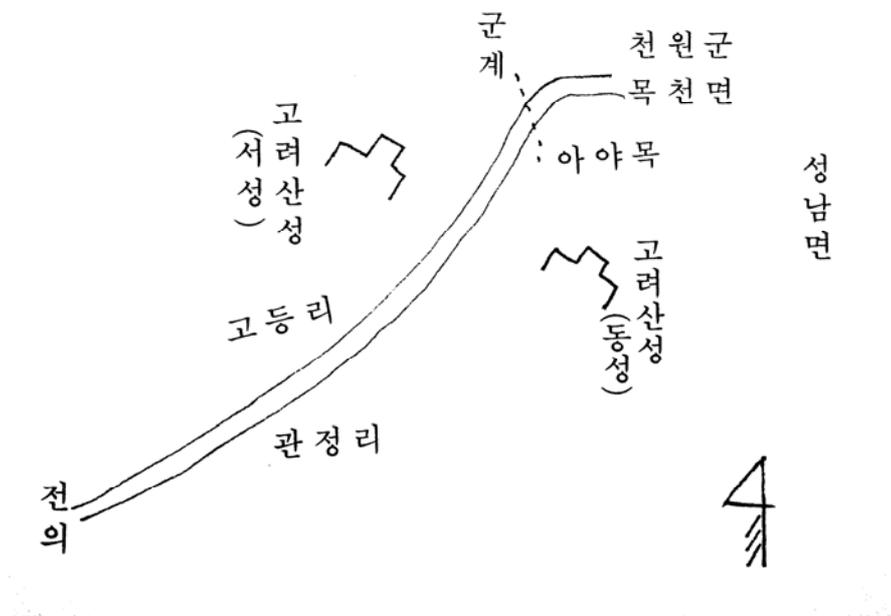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頂上의 흙을 긁어내려서 쌓은 高句麗土城이며 基底部는 石築으로 되어 現在도 거의 原形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土城內에서 多數의 高句麗式 古瓦片과 土器片이 收拾되고 鐵杯가 發見되었다. 標高 280m, 土築 土石築으로 周長 228.5m, 幅 2m, 高 2~3m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保存狀態는 良好한 편이며 隣近 部落民에 의한 사슴잡기 陷穽이 山城內 여러곳에 파있다. 그 陷穽판 흙속에 많은 古瓦片과 土器片이 섞여 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 10. 參 考 文 獻

## 16. 高麗山城(東城)

1. 所在地：燕岐郡 全義面 高登里

2. 關係資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이 山城에 대하여 最近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1980년 3월에 鄭永鎬 博士와 李在俊氏 그리고 筆者의 3인에 의한 數次的 踏査와 調査의 結果로 發見되고 調査된 것이다. 이제까지 高麗山城으로 알려진 것은 「아야목」의 西쪽에 있는 것이었으니 이것을 「西城」이라 하고 새로 發見된 것은 「아야목」의 東쪽에 있으니 「東城」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아야목」 右側의 山頂에 構築된 土城으로써 燕岐郡 全義面과 天原郡 城南面, 그리고 木川面의 3面의 境界가 되는 地點에 位置하고 있다. 周長 460m, 高 2~5m, 幅 5m이며 城內에서 三國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土器片이 多數 收拾되고 한편 얕은 土層에서 多數의 無文土器片이 發見되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保存狀態는 良好한 편이나 樹木이 茂盛하여 接近하기 어려워 調査에 애를 먹었다. 앞으로는 이 山城에 대하여서는 調査할 것이 많다.

## 8. 略 圖

〈高麗山城(西城) 略圖를 참조〉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樹木을 베어내어 接近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이다. 그리고 西城과 함께 整備하고 開發하면 獨立記念館과 至近한 距離이기 때문에 登山客을 誘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西城에도 해당된다.

## 10. 參 考 文 獻

## 17. 高山山城

1. 所在地：燕岐郡 全義面 美谷里

燕岐郡 全義面 青松里

2. 關係資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城誌

燕岐誌

3. 傳 說

全義北의 高麗山城은 高句麗軍이 쌓았고, 南의 金伊城은 百濟軍이 쌓았고, 東의 高山山城은 新羅軍이 쌓았다는 傳說이 있다. 이 傳說은 全義地帶가 三國時代에 國境이었다는 事實에 대한 反映일 것이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이 산성을 俗稱 雲住山城이라고 하지만 이 山城이 高山山城이다. 이 山城 東쪽에 「고소재」가 있다. 雲珠山은 全義南인 金城이 있는 쪽이다. 地方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與地勝覽」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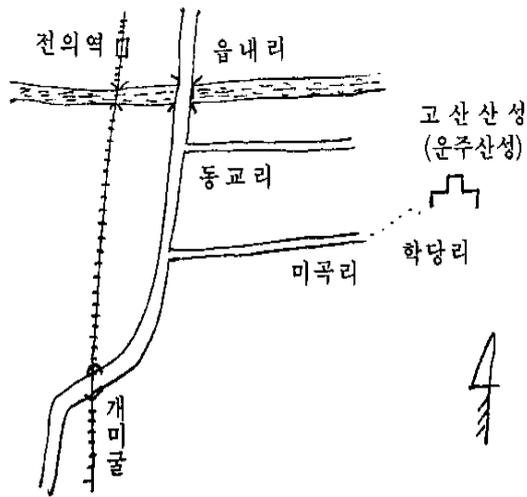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高山은 460m 標高의 네 개의 山頂으로 형성되었는데 이 네 개의 山頂을 石築하여 連結한 것이 高山山城이다. 그리고 그 規模로 보거나 手法으로 보거나 全國的으로 有數한 山城이다. 山城內는 巨大한 盆地로써 高敞하며 山地와 함께 田畝이 되고 水口는 西南方 美谷里 水口洞 쪽으로 터졌다. 石築古井 2개가 原型을 갖고 샘으로써의 機能을 保全維持하고 있다. 石築 東門址와 西門址가 있다. 周長 3,074m, 幅 2m, 高 2~8m가 實測한 數值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4 개의 山頂을 連結한 4 개의 直線으로 된 3,074m의 石城이 거의 原形을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石築에 뿌리를 박은 樹木은 除去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樹木들이 石築을 崩壞시키기 때문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그 自体 壯觀인 이 山城은 특히 整備하고 開發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훌륭한 眺望과 함께 國立公園으로써도 遜色이 없을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18. 金伊城

1. 所在地：燕岐郡 全東面 陽谷里

2. 關係資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城誌

燕岐誌

3. 傳 說

燕岐誌는 이 山城에 대하여 「俗傳壯士男妹誇力所築傳」 이라고 전하였다. 즉 힘센 男妹가 힘을 자랑하며 쌓았다는 俗說이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文周王이 南遷하여 熊津에 遷都하면서 熊津으로의 路목을 지키는 要害인 金城山에 이 山城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輿地勝覽에는 金伊城, 全城誌와 燕岐誌는 金城으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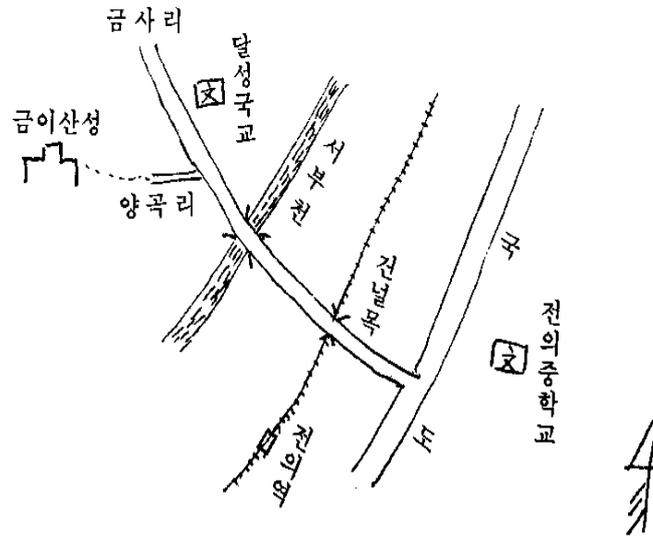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輿地勝覽에 「在雲住山 石築 周一千五百二十尺 內有一井今廢」 라고 傳하듯이 標高 420m 의 峻峰위에 쌓은 石城으로 周長 714m, 高 3~10m, 幅 2m, 井 1의 大城이다. 北은 全義, 川安方面, 南으로는 錦江一帶, 東으로는 淸原郡 南二面の 八峯山까지를 視界에 넣고 있다. 그리고 城北에는 全義에서 熊津으로 가는 假道가 뻗었고, 城南에는 全義에서 燕岐, 儒城으로 가는 高街道가 通하고 있다. 東南部에 構築한 將臺는 石築의 높이 10m를 넘는다. 城門은 良方門으로써 高山山城의 坤方門과 마주보고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城內에는 古瓦片과 三國時代 것으로 보이는 土器片을 多數 收拾하였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山城隣近 사람들이 너구리 잡느라고 部分的으로 石築을 흩어놓은 部分이 있기는 하지만 保存狀態는 比較的 좋은 편이다. 城內의 民墓를 옮기고 흩어놓은 部分을 原狀대로 石築하여야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19. 李 城

1. 所 在 地 : 燕岐郡 全東面 辛芳里

2. 關 係 資 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城誌

燕岐誌

3. 傳 說

全義李氏 始祖이며 麗朝太師였던 李棹가 城을 쌓고 살던 곳이라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高 2~5m, 幅 2m, 井址 2의 山城이다. 輿地勝覽에 「其中寬敞」 이라고 記錄하였다.

5. 沿革 및 事蹟

麗朝太師였던 李棹가 城이어서 李城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百濟時代의 所築으로써 金伊城과 함께 國境 守備를 위한 山城의 하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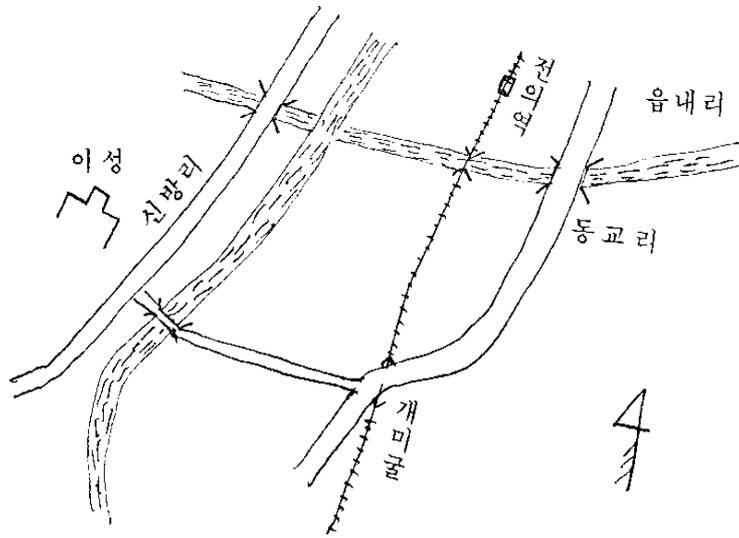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標高 330m의 山頂에 쌓은 土築과 石築으로 된 山城으로 周長 790m, 高 2~5m, 幅 2m, 井址 2의 山城이다. 輿地勝覽에 「其中寬敞」 이라고 傳한 바와 같이 이 山城은 높을 뿐 아니라 山城內가 넓은 편이다. 이 山城은 南쪽 斜面의 石築 部分은 原形을 保存하고 있지만 東南方의 土築 部分은 桑田開發과 民墓造成으로 거의 原形을 잃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西南쪽의 土石築으로 된 部分이 荒廢가 심하다. 이 部分의 開發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멀지않아 山城全域의 荒廢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全義周邊 山城中에서 가장 荒廢된 것이 이 山城이다. 되풀이되지만 桑田開發의 禁止, 個人墳墓 造成의 禁止 등이 時急히 要請된다.

## 10. 參 考 文 獻

## 20. 鵲 城

1. 所 在 地 : 燕岐郡 全東面 松城里

2. 關 係 資 料

全城誌

燕岐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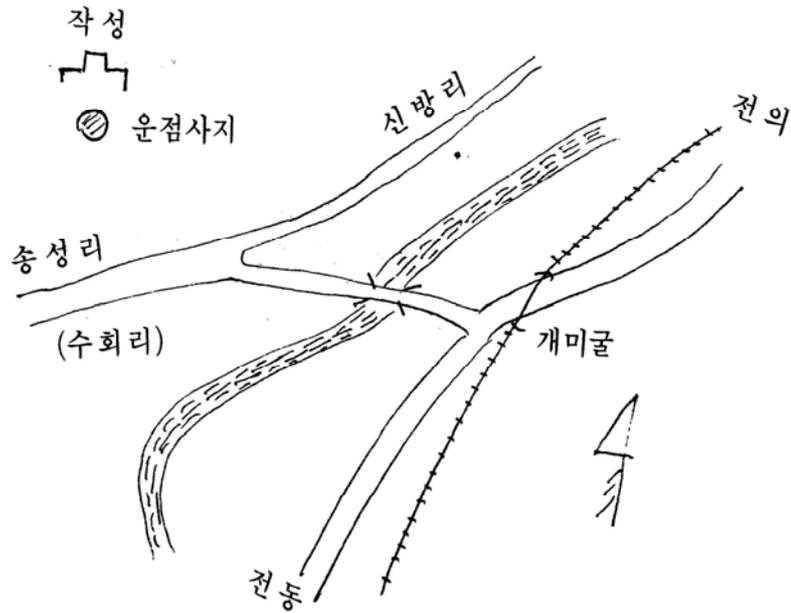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 城은 李城과 金伊城을 잇는 直線의 中間에 位置하였으며 그 작은 規模로 보아 하나의 山城으로는 보기 어렵고 哨所로 보아야 할 것 같다. 標高는 315m, 經長 東西 7m, 南北 8m, 高 2~5m의 극히 작은 石築으로 全義 南小路의 松城里와 西南小路를 잇는 間道邊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石築遺物으로써 哨所도 같고 祭壇도 같아서 用途를 알 수 없는데 이것이 日本에서 말하는 〈神籠石〉의 原形이 아닌지 모르겠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雜草를 除去하고 整備할 必要가 있다. 〈神籠石〉의 原形으로써 學問的인 材料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0. 參 考 文 獻

## 21. 鄉校위 土城址

1. 所 在 地 : 燕岐郡 全義面 邑內里

2. 關 係 資 料

3. 傳 說

百濟末에 日本에서 돌아와 周留城에서 百濟復興을 위하여 싸운 豊王의 王城址라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이 土城은 全義面 邑內리에 있으면서 燈下不明格으로 世上에서 잊혀졌던 것인데 1979년 8월에 淸州 西原學會의 李在俊씨 一行이 土城址로 確認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 後 檀國大學校 鄭永鎬 教授가 引率한 調査團에 의하여 本格的인 調査가 이루어졌고 또한 黃壽永 博士와 車文變 博士에 의한 調査와 確認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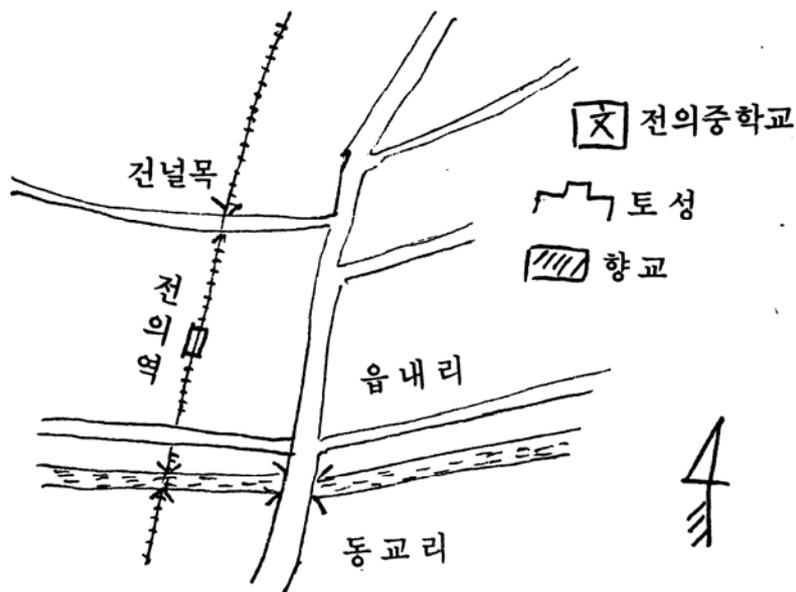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 土城은 얇은 丘陵에 築造되어 人家와 接해 있기 때문에 破損이 甚하고 土城内部의 一部가 밭으로 耕作되고 있기 때문에 荒廢가 甚하다. 그러나 원래가 地形을 利用하여 堅固하게 박아서 構築한 것이기 때문에 城址復原이 어려운 程度는 아니고 北쪽의 土石築部分은 原形을 大体로 保存하고 있다. 半月形으로 正北에 高麗山城, 正南에 李城·鵲城·金伊城, 正東에 高山山城을 거느리고 있는 形局이다. 標高 80m, 土築과 土石築, 周長 818m, 高2~3m, 幅 2m 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土城內에는 三國時代의 土器片 뿐 아니라 統一新羅末의 것으로 보이는 豪華스러운 土器片이 질게 깔려 있고 特異한 것은 黑陶片조차 收拾되는 점이다. 全義周邊의 諸山城과 이 土城의 特異한 相對的 位置와 함께 이와같은 土器片은 많은 問題를 던져주고 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이 土城은 完全히 復原할 뿐 아니라 土城內의 土器片에 대한 情密調査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면으로 問題가 많은 土城이기 때문이다.

## 10. 參 考 文 獻

## 22. 龍子山城(望京台山城)

1. 所在地：燕岐郡 全東面 鳳台里

2. 關係資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義縣條

全城誌

燕岐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現地에서는 望京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上掲 關係資料에는 모두 龍子山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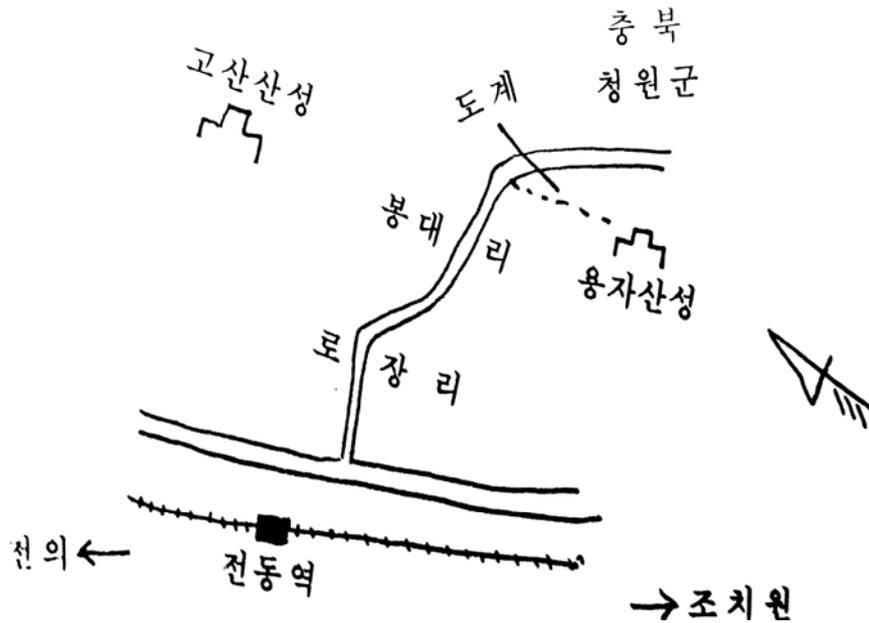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燕岐郡과 天原郡 修身面과의 境界가 되는 俗稱 「고소재」의 左便에 聳은 龍子山 - 俗稱 望京山 (해발 470m)의 峻峰을 둘러싼 山城으로 石築과 土築, 土石築을 겸하였다. 周 約 800m, 高 2~10m, 幅 2m의 百濟山城으로 보인다. 水口는 高山山城과 같이 西쪽으로 나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山城을 中心으로 해서 北에 「고소재」를 건너 高山山城이 있고, 南에는 兵馬山城, 東으로는 東林山城이 築造되어서 이 山城의 重要性을 알 수 있다. 現場은 숲이 우거져서 接近하기 조차 어려운 狀態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이 山城의 保存狀態는 良好하며 土築의 部分이나 石築의 部分 모두 原狀態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草木이 茂盛하여 接近하기 조차 어렵다. 小路라도 내어 「고소재」 건너편의 高山山城과 連結하면 理想的인 登山路가 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洪思俊 「百濟城址研究」 (「百濟研究」 第 2輯)

## 23. 羅 城

1. 所 在 地：燕岐郡 南面 羅城里

2. 關 係 資 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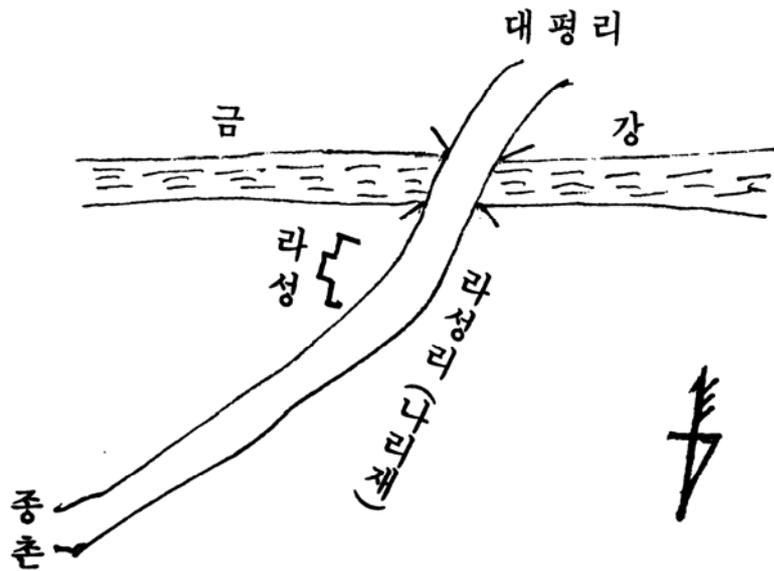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 土城은 羅城里의 「나리재」 마을 뒤의 丘陵을 補完해서 修築한 것으로 거의 南北으로 直線을 긋고 있다. 따라서 錦江의 堤防이 없었던 때는 錦江이 이 土城 밑을 흘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錦江이 범람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丘陵을 補完해서 修築한 土城 때문에 「나리재」가 마을로써 安定性을 얻게 되는 것은 確實한데 언제 누가 어떤 目的으로 이 土城을 쌓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土城의 規模는 大体로 500m의 直線이다. 즉 原地形  를 補完하기 위하여  의 形態로 土築한 것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土城內에 扶安林氏의 家廟와 獨樂亭이 세워졌다. 그리고 前面으로는 「나리재」 部落을 품안에 안고있는 形局이지만 原形은 大體로 保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이 土城은 形態로나 位置로나 많은 課題를 안고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保全策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이 山城內의 獨樂亭만 文化財로 지정하여 保全할 것이 아니라 山城도 또한 保全하여야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24. 石積祭壇

1. 所在地：燕岐郡 全義面 美谷里(셋뜸)

2. 關係資料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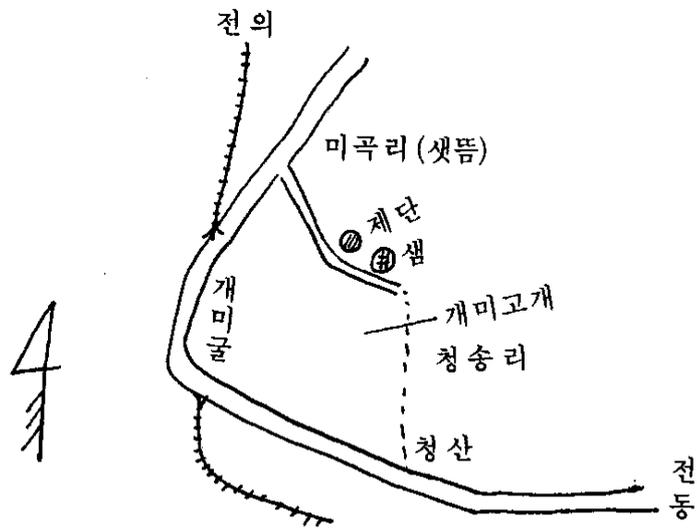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全義의 「개미고개」라고 하면 現在 國道가 通하고 鐵道 「터널」이 뚫인 쪽을 생각하지만 元來의 「개미고개」는 靑松里의 「청산」에서 美谷里 「셋뜸」으로 넘어가는 舊路위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를 넘어서 美谷리 쪽으로 길옆에 自然石으로 싸올려서 만든 高 2m, 幅 3m의 祭壇이 있다. 그리고 祭壇 가까이에서 크게 물이 솟는 샘구멍 있다. 近年까지도 이 祭壇에 제를 올린 것이나 現在는 耕作者들이 돌을 이곳에 버려서 形態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개미고개」의 「개미」가 蟻虫의 뜻이 아니라 原始 샤만교에서 神·神人을 가리키는 Came에 由來한 것이니, 「개미고개」의 石積祭壇은 샘과 함께 保存되어야 하겠지만 제를 올리는 사람도 없어졌으니 無望한 일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雜木을 제거하고 近來에 이곳에 버린 돌을 주어내면 원래의 石積祭壇의 모습이 살아 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25. 高山山城下の 「모수굴」

1. 所在地：燕岐郡 全東面 美谷里

2. 關係資料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始祖條前文參照

3. 傳 說

이 一帶가 옛날의 戰爭터로써 많은 피가 흘렀기 때문에 「피수굴」 이라고도 한다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全義 正東方에 位置한 岩穴로써 近方에서 「무수굴」 또는 「피수굴」 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古代의 墜穴信仰 터로써의 「慕漱穴」 인지도 모르겠다. 앞으로의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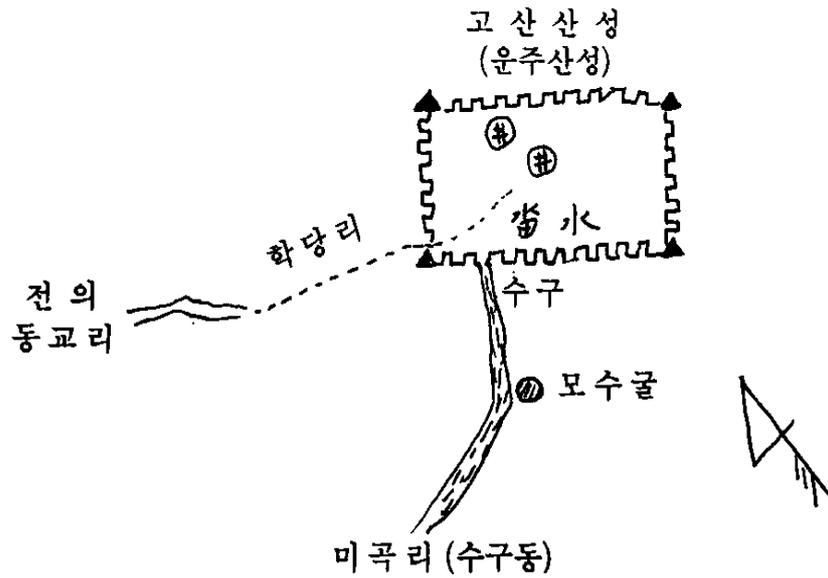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高山山城의 水口쪽으로 난 시냇물을 따라 내려오면 그 중턱 巨巖 사이로 난 高50cm, 幅120cm의 岩穴인데 이 岩穴을 「무수굴」 이라고 하고 「피수굴」 이라고도 한다. 그 內部는 아직 實地踏査를 하지 않아서 確實한 것을 모르지만 이 岩穴에서 불을 때면 高山山城 넘어인 天原郡 修身面에서 煙氣가 나온다고 한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우거진 숲속을 흐르는 시냇물과 시냇물 갖의 巨巖에 뚫인 岩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古代信仰터로써 學術的인 檢討가 있어야 하겠고 内部에 대한 實地 踏査가 있어야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26. 碑 岩 寺

1. 所 在 地 : 燕岐郡 全東面 多方里

2. 關 係 資 料

全城誌

燕岐誌

忠清南道誌

黃壽永 「韓國佛像의 研究」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673년 (文武王 13년)을 期하여 百濟遺民들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現在 極樂寶殿 1棟과 寮舍 1棟이 있다. 그리고 寶殿 앞에 三層石塔이 남아 있다. 朝鮮朝 中葉 것으로 보이는 掛佛이 있는데 碑岩寺가 最近에 有名해진 것은 이 절에서 다음과 같은 石佛像이 出現했기 때문이다.

(1)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國寶第 106號 國立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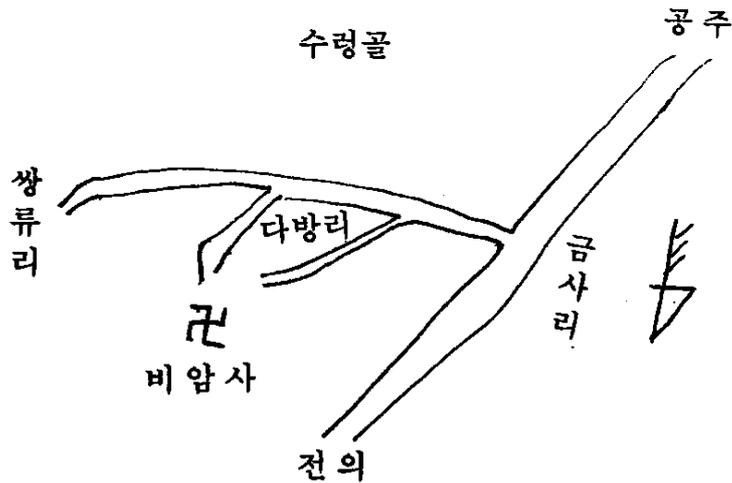
(2) 乙丑銘阿彌陀佛及諸佛石像 (寶物第 367號 " )

(3) 彌勒半跏思惟石像 (寶物第 368號 " )

## 7. 遺物現況 및 特徵

極樂寶殿과 石塔은 地方文化財로 指定되어 大的인 補修를 거쳐 重建 당시의 모습을 찾았다. 前面에 3門, 側面이 2門인 瓦葺이며 堂內에는 坐高 190cm의 阿彌陀佛을 모셨고 그 後壁의 닻집(唐家)이 優秀하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寺域에 대한 調査를 거쳐 창건당시의 모습으로 復元하기 위하여 寺刹로써의 歷史的 意義와 背景이 明確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27. 碑岩寺의 三層石塔

1. 所 在 地 : 燕岐郡 全東面 多方里

2. 關 係 資 料

忠清南道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 石塔은 碑岩寺 極樂寶殿 앞의 三層으로 된 高麗時代의 優秀한 石塔이다. 高 288m, 基壇幅 170cm, 覆鉢相輪部가 缺失되었던 것을 數年前에 補修하였다. 碑岩寺의 石佛像 3個는 이 塔에 얹혀 있었다.

7. 遺物現況 및 特徵

8. 略 圖

〈碑岩寺 略圖를 참조〉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10. 參 考 文 獻

## 28. 蓮花寺

1. 所在地：燕岐郡 西面 月河里

2. 關係資料

黃壽永 著 韓國佛像의 研究

燕岐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1914년 甲寅年에 故 洪文變씨에 의하여 창건 된 절이며 現所有者는 그의 子婦인 曹昌禮女史다. 이 蓮花寺는 鳥致院邑에서 南西 약 2km地點에 있으며 낮은 丘陵을 등지고 西向하고 있다. 그러나 蓮花寺가 重要的 것은 寺刹로써 重要的 것이 아니라 保有하고 있는 石佛像 때문에 重要的 것이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 절은 近來의 私設法堂이지만 이 절에는 「燕岐七佛像」 중에서 다음 2개의 石佛像을 保有하고 있다.

(1) 蓮花寺戊寅銘半跏思惟三尊石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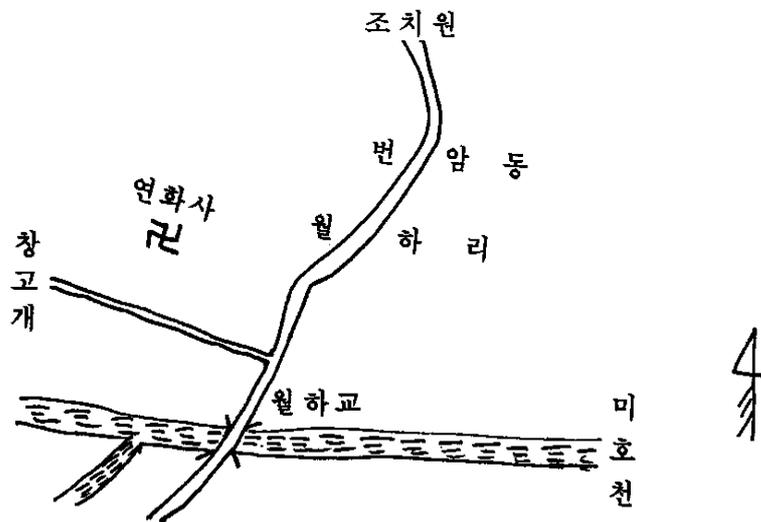
(2) 蓮花寺無銘阿彌陀佛石像

이 石佛像에 대하여는 黃壽永 著 上掲書에 자세한 說明이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現在까지 出現한 「燕岐七石佛碑像」 중에서 5개는 燕岐郡을 떠나가고 2개만 이 蓮花寺에 남아 있다. 數年前에 2개石像이 國寶로 指定되면서 特設法堂을 지어 保護하고 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燕岐郡은 燕岐郡現地에 남은 2개의 石佛像에 대하여 觀心을 가지고 그 保護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他地에 流出하지 않겠끔 하여야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黃壽永著 前掲書

秦弘變著 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대하여

(歷史學報 第十七·十八號)

## 12. 雲 霧 寺 址

1. 所 在 地 : 燕岐郡 全東面 松城里

2. 關 係 資 料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十八

全城誌

燕岐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이 절에 대하여는 輿地勝覽이 刊行된 當時만 해도 분명히 寺刹로써 存在한 것을 알 수 있지만 現在는 寺址만 남아 있다. 輿地勝覽은 이 절에 대한 崔有悰의 詩를 傳하고 있다.

寺在烟霞裏 層巒第幾重 山深松落落 江闊水溶溶  
講榻臨無地 禪窓倚半空 回頭塵世遠 老衲自從容

6. 遺蹟現況 및 特徵

全城誌에 「一名 鵲城在縣男八里爲邑治對案」 이라고 하듯이 이 寺址는 鵲城 및 松城里 쪽으로 있다. 寺址에는 廢井址와 함께 塔身破片 基壇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그리고 虎杖이라는 稀貴한 植物이 여름한철 과초잎 같이 넓은 잎을 드리우고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寺址로 보아 雲霑寺는 서서히 퇴락하여 廢寺가 된 것이 아니라 一時에 마구잡이로 짓부수어 破壞하여 廢寺가 된 것이다. 앞으로 있을 發掘의 結果에 기대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 8. 略 圖

〈鵲城 略圖를 참조〉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鵲城과 그 밑에 있는 寺址가 갖은 景致는 絶景이라고 할만한 것이다. 鵲城과 함께 이 寺址가 갖은 歷史的 背景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寺址에 대한 發掘調査와 함께 整備가 時急하다.

## 10. 參 考 文 獻

## 30. 松龍里의 磨崖佛

1. 所 在 地 : 燕岐郡 東面 松龍里(羅洞)

2. 關 係 資 料

燕岐誌

3. 傳 說

이 磨崖佛의 머리로 뱀이 올라갔기 때문에 벼락을 쳐서 磨崖佛의 頂部右側이 破壞되었다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文公部 告示 石造 第 170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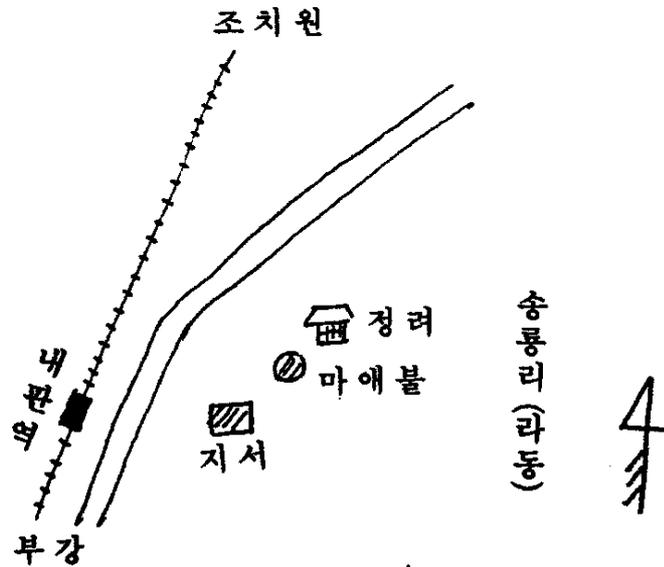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統一新羅 時代의 것으로 보이며 蓮花모양의 原石表面에 부처가 서 있는 모습을 陽刻한 것이다. 頂部右側이 破損이 되었다. 高 220cm, 大幅 190cm

## 7. 遺物現況 및 特徵

最近까지 大路邊에 있었던 것을 約 10m 위의 山地로 옮겨서 모셨기 때문에 保存에 달이 없어졌다. 露天佛像으로서는 保存狀態가 良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 10. 參 考 文 獻

## 31. 大谷里의 四層石塔

1. 所 在 地 : 燕岐郡 全義面 大谷里

2. 關 係 資 料

燕岐郡誌

3. 傳 說

新羅時代에 大谷里 탑상골에 큰 寺刹이 있었고 이 四層石塔은 그 寺刹의 것이었는데 閔大監이 그의 집 뒤뜰에 옮겨다 놓고 몰락하였다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文公部 告示 石造 第 158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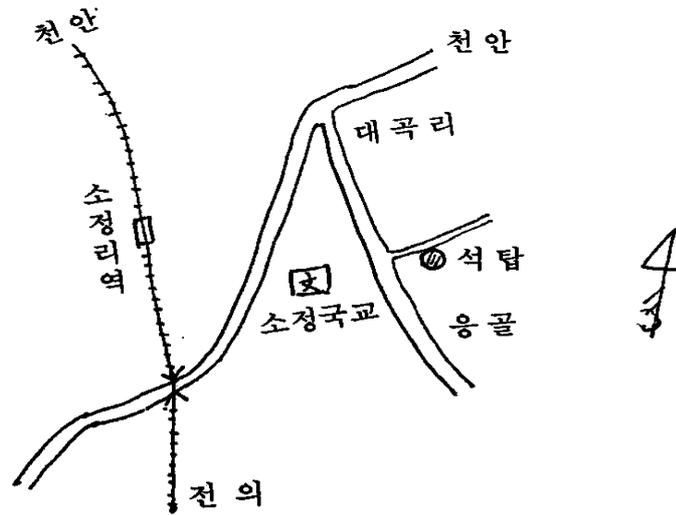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이 石塔의 總高는 102m, 三層石塔인데 屋蓋 받침이 三段式으로 되어 있고 屋蓋石塔身이 一個石으로 되어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그 지간 몇 차례 紛失되었던 것을 部落民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지금은 大谷里部近 응골洞里的 한구석 길가에 세워져 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길가 논두렁에 둘 것이 아니라 場所를 옮겨 保存할 필요가 있다.

## 10. 參 考 文 獻

## 32. 栗 寺 址

1. 所 在 地：燕岐郡 錦南面 永垈里

2. 關 係 資 料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十七 公州牧

燕岐誌

3. 傳 說

仁祖의 公州播遷寺, 이 절에서 進上한 밤을 자시고 그 맛을 칭찬하며 절 이름을 밤절(栗寺)로 고치도록 하였다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燕岐誌는 栗寺의 古稱은 靑林寺였다고 傳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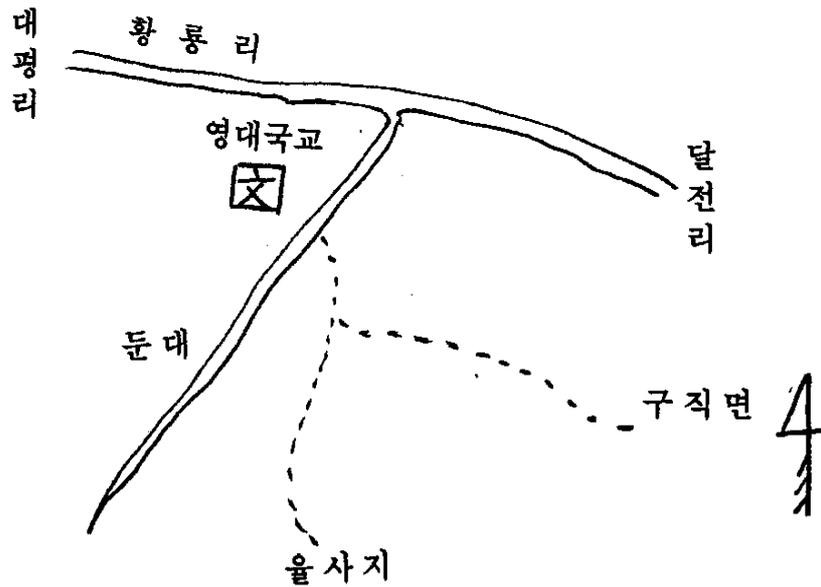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절 入口 左右에 石製幢竿支柱가 남아 있고 寺址 右側崗上에 悔隱堂 大師의 浮屠가 있다. 그리고 그 浮屠 뒤에 「有明朝鮮國 悔隱堂大師之 石藏婢」라고 前面에 刻字한 石藏碑가 서 있다. 幢竿支柱는 높이 120 cm, 幅 50cm의 육중한 것이며 浮屠의 높이는 170cm, 둘레는 250cm程度의 육중한 것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石藏幢竿支柱는 盜失될 危險이 있기 때문에 文化財로 지정하여 保護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浮屠와 浮屠婢도 현재 아카시아 숲속에 들어 있으니 이것도 文化財로 지정하여 保護할 必要가 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浮屠와 浮屠婢의 調査와 함께 아카시아의 숲이라도 除去하였으면 좋겠다. 몇 군대의 돌무덤 개와무덤이 있는데 이것도 파헤쳐 보면 좋겠다. 이 寺址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發掘할 必要가 있고 整備를 서둘러 줄 必要가 있다.

## 10. 參 考 文 獻

## 33. 正 左 山

1. 所 在 地 : 燕岐郡 西面 雙錢里

2. 關 係 資 料

高麗史 忠烈王十六年條

高麗史節要 忠烈王十六年條

燕岐誌

3. 傳 說

雙錢里를 창고개라 하고 또 승적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高麗軍이 이 크게 이긴 곳이기 때문에 이런 洞名이 비롯된 것이라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蒙古系의 叛亂軍 哈丹과 이것을 正左山에서 섬멸시킨 韓希愈와 金忻 등이 있다.

5. 沿革 및 事蹟

忠烈王 16년 (1290년) 에 蒙古系의 叛亂軍 哈丹賊이 東北界로 侵入해 들어왔다. 高麗軍은 몇차례 이것을 섬멸시키려 했으나 失敗하고 王은 江華島로 避難하였다. 결국 哈丹賊은 正左山까지 쳐내려와 正左山에 陣을 쳤다. 이것을 高麗軍은 不意襲擊하여 大勝利를 건우었다. 이 大勝利를 歷史上 「燕岐大捷」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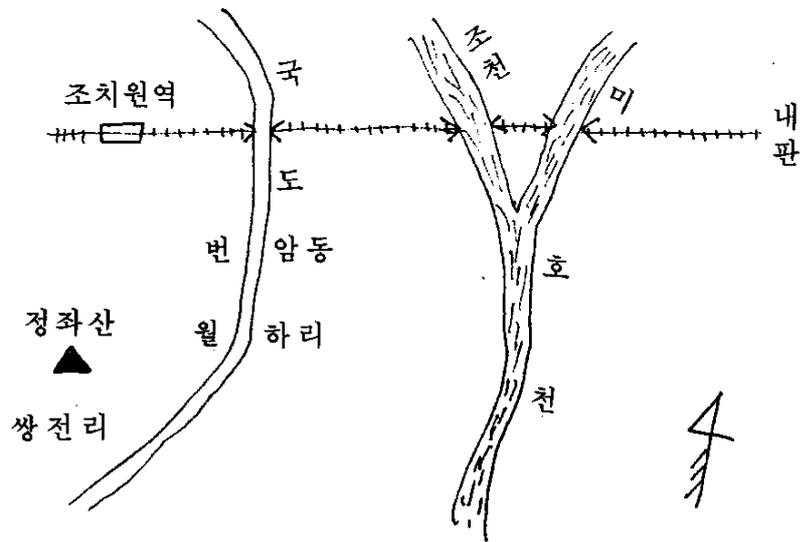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높은 高地는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四方을 널리 眺望할 수 있다. 遺蹟으로 남은 것은 없고 다만 洞民들에 의한 옛날 싸움터였다는 傳承에 대하여 들을 수 있을 뿐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遺物으로써 傳하는 것이 없다. 다만 高麗史, 高麗史節要 등 정사에 「燕岐大捷」을 傳하고 「伏屍三十里」를 傳하는 이 正左山에 대하여 歷史地理學的인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이 正左山 앞의 國道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歷史上 그토록 有名한 正左山 앞을 지나면서도 正左山인 줄을 모른다. 國道邊에 「燕岐大捷戰蹟碑」는 못세우더라도 標示板이라도 세움직한 일이다.

## 10. 參 考 文 獻

## 34. 砂 器 所

1. 所 在 地 : 燕岐郡 全東面 金砂里

2. 關 係 資 料

全城誌

燕岐誌

忠清南道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이조중엽까지 사기를 구었다는 窯址 3個所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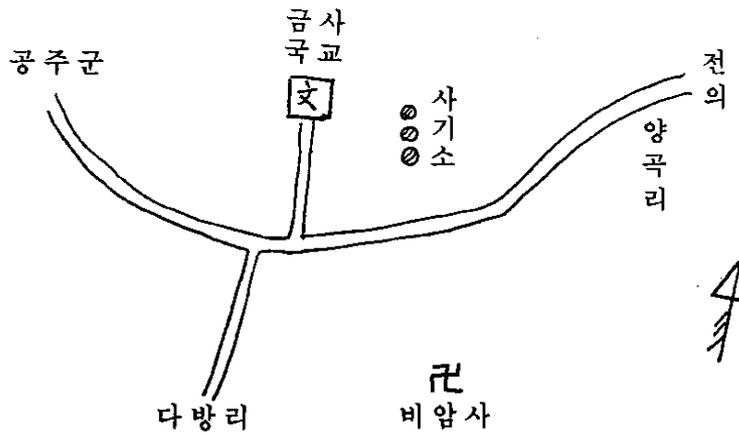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金砂里 後山下 現在는 밭으르 耕作되지만 이 밭가운데 窯址 3個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個所는 最近까지 大體의 모습을 存在하고 있었다. 附近에는 高麗磁器破片이 깔려 있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現在 밭으로 耕作되고 있기 때문에 破壞와 逸失이 甚하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이 陶窯址는 精密히 發掘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본다. 發掘에 의하여 陶器에 대한 技術的인 것을 發見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35. 御 書 閣

1. 所 在 地 : 燕岐郡 南面 高亭里

2. 關 係 資 料

燕岐郡誌

3. 傳 說

李成桂가 물을 청하는데 표주박에 물을 떠 버들잎을 띄워서 올렸다는 처녀가 後日의 康妃-聖德王后였다는 傳說이 있다.

4. 關係事件 및 人物

康妃의 父 康允成(象山府院君)

康妃의 오라버니 康舜用

5. 沿 革 및 事 蹟

李成桂가 등극한 後 康妃의 오라버니 康舜用에게 내린 教旨를 그 後 孫들이 간직하였는데 英祖께서 이것을 알고 教旨에 跋文을 붙이고 御書閣을 建立토록 하였다. 그 후 正祖가 聖德女王이 出生한 곳에 碑와 碑閣을 세우게 하였다. 現在의 御書閣은 英祖때 賜額되었던 것을 1846년(憲宗12년)에 建立한 것이다. 高宗이 다시 親筆을 下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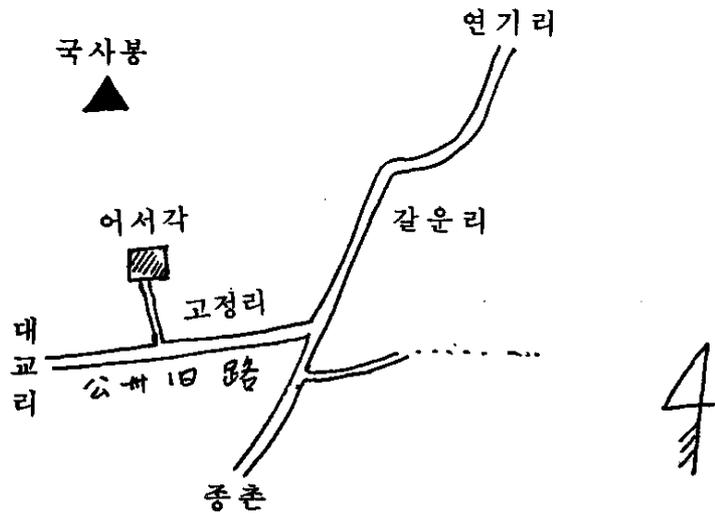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현재 御書閣의 建物만 남고 太祖·世祖·英祖·高宗 四大의 親筆 原本은 奎章閣에서 保管하고 있다. 그리하여 英祖親筆의 懸板만 남아 있다. 康妃는 芳蕃과 芳碩 그리고 敬順公主를 낳았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太祖의 教旨는 麗末鮮初의 文書로써 그 自体가 學問的으로 貴重한 資料이며 여기에 英祖의 跋文이 붙은 것이니, 더욱 貴重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奎章閣에 保存된 原本에 대한 複寫本이라도 製作하여 御書閣에서 保管하여야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36. 合湖書院

1. 所在地：燕岐郡 東面 合江里

2. 關係資料

燕岐誌

合湖書院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革 및 事蹟

文公部 告示 建造 第 2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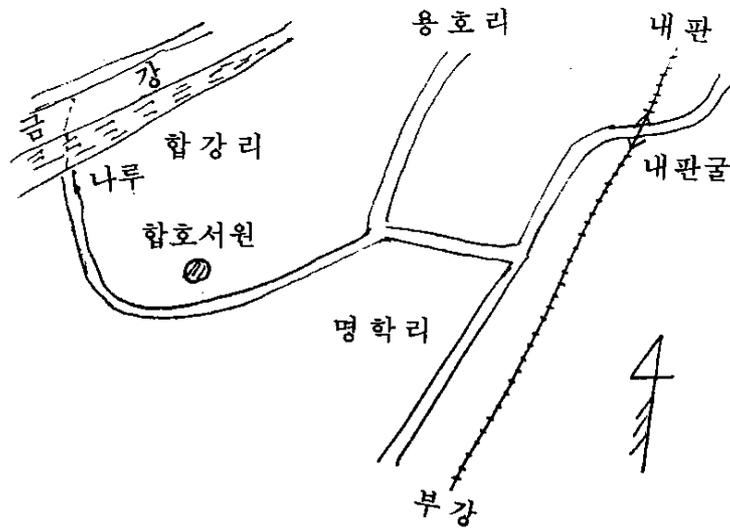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朱子學을 처음으로 傳來한 安裕의 位牌를 모신 곳이며 影幀과 親筆 2點을 所藏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文化財로써 또는 史料로써 는 親筆에 貴중한 價値가 있는 것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影幀을 書院에 모시고 있고 親筆은 安承玉씨가 따로 맡아서 保藏하고 있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書院 建物內에 따로 場所를 마련해서 親筆을 保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10. 參 考 文 獻

## 37. 鼓山任憲晦의 墳墓

1. 所 在 地 : 燕岐郡 東面 鳴鶴里(검은들)

2. 關 係 資 料

燕岐誌

德星書院記

玄相允著 朝鮮儒學史

國史事典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5. 沿 革 및 事 蹟

朝鮮朝의 後期의 著名한 儒學者로서 또는 畿湖學派의 首領으로서 良齊田愚의 師傅였던 鼓山任憲晦의 墳墓인데 아는 이가 극히 드문 實情이다.

燕岐郡 南面 方丑리에 崇德祠와 德星書院이 있어 鼓山이하 七賢을 모시고 있다.

6. 遺蹟現況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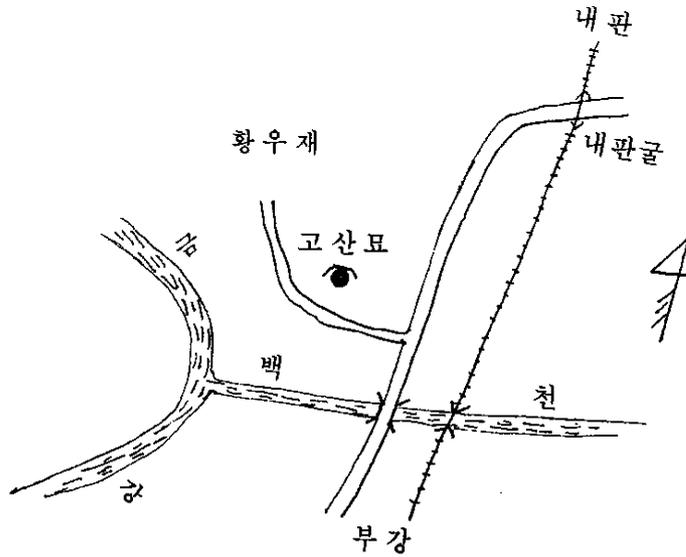
大儒學者의 墳墓로써 儉素하며 四尺 石床이 있을 뿐 墓碣조차 서지 않았다. 墓域은 淨潔하고 墳墓의 塹는 잘 살았다.

經筵官에 當選되고 史曹參判과 大司憲을 거치고 贈織으로써 正二品 資憲大夫 內部大臣의 벼슬을 받은 分의 墳墓로써 儉素하고 淨潔해서 옷깃을 여미게 한다. 大路에서 가까운데도 아는 이가 없는 것은 墓碣조차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高山의 墳墓는 네차례 移轉하여 現在의 자리에 永葬되었기 때문에 神道碑도 세우지 못하고, 文人石 · 武人石도 세우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儒學史 있어서의 鼓山의 位置를 생각하여 神道碑가 아니더라도 墓碣이나마 세워야 할 것이다.

## 10. 參 考 文 獻

## 38. 洪大容先考櫟墓碑

1. 所在地：燕岐郡 全義面 東校里

2. 關係資料

洪大容 湛軒集

全城誌

3. 傳 說

4. 關係事件 및 人物

洪大容과 洪大容의 從兄大應

5. 沿革 및 事蹟

實學者이며 地動說을 주장한 洪大容이 擇한 그의 先考 羅州牧使 櫟의 墓碑로써 이 墓碑 左右 側面에는 淸朝第一의 詩人 潘庭均의 自筆로 된 輓詩가 刻寫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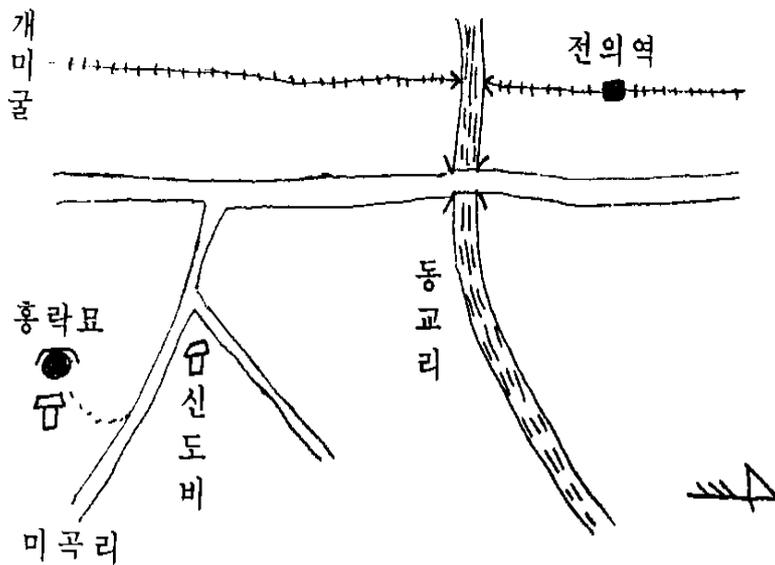
6. 遺蹟現況 및 特徵

洪大容이 직접 擇하고 名筆로 알려진 그의 從兄大應의 書로 된 이 墓碑는 그러한 事實만으로도 注目하여야 하겠지만 한편 詩人으로 國內外에 알려졌던 洪櫟에 대한 淸國의 第一詩人 潘庭均의 自筆輓詩가 刻寫되어 있으니 文化의 國際交流로서도 注目할 만한 것이 있다. 그리고 潘庭均의 筆蹟을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당시의 兩國學者들의 交流相과 北學의 影響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점에서 注目할 만한 金石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7. 遺物現況 및 特徵

이 墓碑는 製作하여 세웠던 당시의 原狀을 잘 維持하고 있다. 碑面도 모두 깨끗하다.

## 8. 略 圖



## 9.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 10. 參 考 文 獻

實學者로서의 洪大容과 詩人으로서의 潘庭均에 대하여서는 모두 史書와 文學史에 자세히 傳하고 있지만, 이 碑에 대하여서는 傳하는 것이 없다.

I

## 史前의 遺蹟

支石墓와 卵生神話를 中心으로



## [一]

燕岐郡은 舊石器遺跡地로 有名한 公州郡 長岐面 石壯里와 隣接해 있지만 舊石器遺跡은 아직 發見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燕岐郡의 遺蹟調査는 現在로써는 新石器時代부터가 되겠는데 多幸히 이번에 13基의 支石墓와 4基의 立石을 發見하여 調査할 수 있었다.

이들 支石墓와 立石들은 거의가 錦江邊 또는 그 支流인 美湖川邊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錦江流域의 巨石文化遺蹟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錦江流域 巨石文化遺蹟의 거의가 그러하듯이 燕岐郡의 支石墓도 南方式이며 길이 3m를 크게 넘는 것은 없고 立石 또한 높이 3m를 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러한 支石墓와 立石등 燕岐郡의 巨石文化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理解하여야 할 것인가?

## [二]

韓國의 支石墓와 立石 등 巨石文化遺蹟에 대한 既往의 研究蓄積이 결코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形便이지만 研究家의 거의가 이것을 韓半島獨自의 文化遺蹟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서 東北아시아의 範圍에 限定해서 보고자 하였다. 즉 汎世界的인 視野에서 보고자한 研究는 없었다. 그런 意味에서 汎아시아의 또는 汎世界的으로 보고자한 漢陽大學校 金兼模教授의 研究가 注目되며 다음과 같은 그의 發言이 留意된다.

이번調査 「자바島의 巨石文化,-인도네시아 巨石文化의 研究\*」에 관한 基礎發想은 筆者가 西歐에 留學하는 동안 西歐의 巨石文化遺蹟을 돌아보고난 後부터 였다. 즉 西歐의 巨石文化遺蹟들은 山間이나 內陸의 奧地에 만들어진 것들 보다는 河川流域이나 海岸에서 멀지 않은 곳에 位置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點에서 着想한 것이다. 이러한 點은 巨石物의 崇拜思想이  
랄까 Rock Animism이 물(河·湖·海) 주변에 生活하던 古代人들 間에  
퍼진 古代思想(信仰)의 전파인지 모른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巨石文化는  
물의 文化 (Water Culture)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서 研究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의 巨石文化遺蹟은 흑해지방의 마이콥(Maikop) 文化에 卓子式支  
石墓들이 있으며 印度에도 支石墓와 石棺墓의 存在가 報告되어 있다. 그리  
고는 臺灣, 日本의 九州地方, 中國의 東海岸, 韓半島와 南滿州에서 發見  
되고 있는데, 印度에서 부터 臺灣까지의 廣大한 地域에서는 考古學者가 提  
供하는 巨石文化의 確實한 資料는 많지가 않고 특히 말레이시아半島 ·스마  
드라·자바·보르네오·셀레베즈·파푸아뉴우기니아 등 여러 섬에 걸친 地域  
에 관한 考古學的 調查報告 특히 先史時代 研究는 아주 드문 것이 現實이  
다.\*

西歐의 巨石文化遺蹟들이 山間이나 奧地에 만들어 진 것들 보다는도 河川  
流域이나 海岸에서 멀지 않은 곳에 位置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였지  
만 燕岐郡의 巨石文化遺蹟 역시 山間이나 奧地에는 없고, 錦江이 내려다보  
이는 錦江流域의 臺地 또는 美湖川이 내려다보이는 美湖川流域에 있다.

이러한 점으로 西歐의 巨石文化를 물의 文化 (Water Culture)라고 한다면  
燕岐郡의 巨石文化 역시 물의 文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類似點은 단순히 우연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필연  
적인 것일까? 이런 것이 問題가 될 것이다.

\* 「자바島의 巨石文化」 (「韓國考古學報」 第 8輯) 參照

### [三]

종래 세계巨石文化에 관한 學說로써는 「캠임브리지」 大學의 「글린 다니  
엘」 教授가 주장한 西유럽의 巨石文化와 極東의 巨石文化는 각기 自然發生

하였다는 說이 有力하고 東北아시아地域의 考古學者들도 두 大陸의 巨石文化를 연결시킬 재료가 없어서 오랫동안 「다니엘」 教授의 說에 승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 中央아시아, 印度까지는 巨石文化의 存在가 밝혀졌으나 印度以東에서 臺灣까지는 支石墓가 發見되지 않아서 傳播說을 뒷받침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그러던 차 1980년에 金兼模教授에 의하여 인도네시아의 자바·스마트라島에서 卓子모형의 北方式支石墓와 함께 南方式의 支石墓가 分布되어 있는 것이 確認되었다. 그리하여 印度로 부터 臺灣까지의 廣大한 地域에서 支石墓의 存在가 처음으로 確認되어 「다니엘」 教授의 自生說에 對하여 한 곳에서 發生한 文化가 흘렀다고 보는 傳播說을 주장할 수 있는 根據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南方에서 文化가 傳播해 왔다는 所謂 南方說은 韓國學界에서 人氣가 없다. 人氣가 없으니 보다는 차라리 冷待를 받는다.

그 理由는 北方 우랄·알타이方面에서 優秀한 文化가 傳播해 온 것이라면 좋지만 빠지면 죽는 바다뿐인 南方에서 어떻게 文化가 傳播해 왔겠느냐는 것이며 또한 粗劣한 土人만이 사는 南方에서 어떻게 文化가 傳播해 왔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南蠻」 이라고 하여 南方이라하면 無條件 野蠻으로 본 中國 또한 日本學者들의 온당치 못한 편견을 그대로 도습한 좋지못한 인습인데 이러한 인습이 支配的인 學界에서 巨石文化의 南方傳播說을 주장하기란 그 자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 南方傳播文化라고 한대서 그것은 南方赤道의 土人文化 또는 아프리카土人の 文化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海洋루트에 의한 印度 및 인더스發祥의 文化 또는 그 보다는 멀리 메소포타미아發祥의 高文化傳播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海洋은 그 自体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文化傳播를 가로막기도 하지만 文化傳播의 大路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要컨대 이때 南方文化라고 하면 그것은 南方傳播文化로써 古代의 印度亞大陸 그리고 그 以西 發祥의 文化가 印度亞大陸 - 말레이半島 - 보르네오

海域 - 南支那海 - 東支那海 - 黃海의 루트를 따라 傳播된 高文化를 意味하는 것이니 싫어할 까닭이 없고 미워할 까닭이 없고 否認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되풀이 되지만 一昔前의 日本學者들이 南方文化傳播說에 대하여 否認하고 拒否하고 排斥한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었다.

그것은 太平洋環流인 黑潮의 直接的인 影響圈에 있는 日本列島에 있어서의 日本民族自體의 形成 또한 日本民族文化自體의 形成에 있어서 그 基底에 南太平洋島嶼民의 流入과 함께 그 低文化의 傳播를 否認할 수 없고 否認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明治時代에 日本民族優秀論을 주장하고 그것을 定立하려고 했던 一部官僚學者들이 日本民族文化形成論에서 所謂 南方文化傳播說을 徹底的으로 排斥했던 것이다. 즉 南太平洋島嶼의 野蠻的인 土人들이 黑潮를 타고 日本列島에 流入해서 日本人들의 祖上이 되었다거나 또한 그들의 文化가 日本民族文化의 基底가 되었다면 日本民族優秀論에 利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害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本人들의 그런 것을 흥내낼 필요는 없다. 全然 條件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現在 日本學界에서도 事情이 달라져서 南方文化를 忌避하는 대신 이에 대한 實証的 研究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모르고 언제까지나 南方文化라고 해서 忌避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四]

그러면 古代의 印度 또는 더 멀리 그 以西의 高文化가 南方의 루트에 의하여 東北아시아의 韓半島에 傳播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證明할 수 있는냐고 묻겠지만 그것을 알려주고 證明해 주는 것이 巨石文化遺蹟의 分布狀況이며 또한 卵生神話의 分布狀況일 것이다.

즉 卵生神話와 巨石文化는 겹쳐서 東北아시아에서는 南滿州를 限界로 하

여 그 以北에는 分布되지 않았다. 따라서 巨石文化와 卵生神話는 南方傳播로 볼 수 밖에 없고, 印度亞大陸으로 부터 말레이半島 - 보르네오 海域 南支那海 - 東支那海 - 黃海의 周邊을 分布圈으로 하고 있다. 즉 그 起源은 南方赤道附近의 原住民發祥의 低文化가 아니라 印度方面 또는 그 보다도 멀리 그 以西로부터의 高文化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傳播루트로서 앞서 列擧한 南方海域의 周邊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1971년 11월 28일 韓國文化人類學 大會에서 「卵生神話의 分布圈」이라는 題目으로 研究發表한 적이 있다. 이 研究는 다음 해 1972년 2월에 「韓國文化人類學」誌 第 4輯에 掲載되고 다시 1973년 7월에는 東京·韓國研究院의 「韓」誌 第 19輯에 日文中으로 掲載되었다.

그 研究의 概要는 卵生神話는 히말라야地方에서는 티벳·판자르, 印度에서는 문다諸族, 東南亞의 大陸部에서는 미키르族, 류사이族, 진族, 버마의 멘·마오王國, 버마의 諸王朝, 타이族, 베트남人,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다크族, 자바, 東南보르네오, 세레베스의 미나하사族, 比律賓의 다바오, 多摩套國(唐代), 臺灣의 바이완族, 東아시아에서는 海南島의 黎族, 中國 東海岸의 徐偃王, 加羅·新羅·高句麗에 分布되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 神話는 분명히 南方系이지만 南方系중에서도 이 神話는 東南亞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狩獵民文化와 古層의 栽培民文化에 屬하는 것이 아니라 比較적으로 새로운 「돈손」文化와 같은 靑銅器文化의 흐름에 結付되는 神話라고 하였다. 또한 이 神話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갈래는 西方으로 向하고 한 갈래는 東方으로 向해서 分布된 것 같다고도 하였다. 筆者는 〈卵生神話의 分布圈〉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五]

1980년 3 월에 金兼摸 教授가 인도네시아의 자바 · 스마트라島에서 우리 것과 똑 같은 支石墓와 立石등을 發見한 것을 안 筆者는 筆者의 論文 「卵生神話의 分布圈」을 提示하고 世界的으로 卵生神話와 支石墓등 巨石文化는 겹쳐서 分布된 것으로 豫想되는 마이니 考古學의 立場에서 檢討할 것을 중용하였다.

金教授는 1982년 5월에 아시아 5개국 學者가 參加한 「아시아 巨石文化 比較研究」라는 國際學術會議를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와 漢陽大學校 共同主 催로 가졌다.

印度教育省 考古調查局長 H· 사카르씨, 인도네시아 國立考古學研究所長 P·P·수요노씨, 말라야大學長 찬드란 제슈림씨, 熊本大學甲元眞二씨그리

고 많은 國內學者가 參加한 이 會議에서 金兼摸 教授는 韓國의 巨石文化는 卵生神話와 함께 稻作文化를 同伴하여 南方에서 傳播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學術會議에서의 金教授의 이와 같은 주장의 概要는 당시의 新聞들이 크게 報道하였지만 教授는 學術會議에서의 各國學者들의 研究發表와 自身の 研究發表를 한데 묶어서 “Megalithic cultures in Asia” 라는 英文論文集을 漢陽大學校의 “Monographs No. 2”로 刊行하였다.

金兼摸 教授는 이 論文集의 끝을 맺는 論文으로 “ A new interpretation of megalithic monuments in korea” (韓國巨石文化遺蹟의 新解釋)을 싣고, 그 論文의 結論으로 “Oviparous myth and dolmen”(卵生神話와 支石墓)라는 題目의 一章에서 汎아시아的으로 卵生神話와 支石墓의 分布가 겹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 **Oviparous myth and dolmen**

One method of interpreting an ancient civilization is to adopt mythology which gives pictures of an ancient society. To get a better picture of the dolmen building society in the Korean peninsula, myths of the chiefdom or the tribal state covering the time range from the Bronze age to the Iron Age in Korea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book on the history of three kingdom (B.C.1C.-A.D.10C.) Sam-kuk-yu-sa gives us so inspiring accounts explaining how the ancestors of the kingdoms were born and where the old chiefdoms were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some accounts in the Chinese history books, Hou-han-shou and San-kuo-chi, also give very crucial illustrations of the ancient society in Manchuria and Korea

#### **卵生神話와 支石墓**

古代文化에 대하여 說明하는데 그 한가지 方法으로 古代社會의 그림인 神話を 쓸 수 있을 것이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支石墓를 만든 社會의 더 좀 훌륭한 그림을 얻기 위하여 韓國에 있어서의 靑銅器時代부터 鐵器時代까지의 渠師 또는 部族國家의 神話を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三國時代의 史書인 三國史記는 우리들에게 王國의 先祖들이 어떻게 誕生하고 어디에서 古代의 部族國家가 發祥하였는지에 대하여 說明하는데 심히 鼓舞的인 根據를 提供해 주고 있다. 中國의 後漢書와 三國志등도 滿洲와 韓半島의 古代社會에 대하여 正確한 說明을 提供해 주고 있다.

Accounts on myths from Chinese sources and Korean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as far as the myths of the founders of ancient states ( or chiefdom ) in Korea are concerned. First category includes the legend of heavenly son, which is the founder or the ancestor of a founder of a state is the son of the heaven. For instance Huan-ung, who established Ko-cho-son, a legendary state in around circa 24 Century B.C., was the son of the heaven. Hae-mo-su, the founder of Pu-yeo (or Tongpu-yeo) state was the son of heaven. The ancestors of the silla kingdom (circa 1 Century B.C.-) were the chiefs of the six villages and they came down from the heaven. This heavenly son myths are common in North Asia where the Altaic languages are being spoken. Second category of ancient myth in Korea is Oviparous myth, which is a belief of ancestors or founders of a state being born from the egg( or box). Examples of this kind of myth in Korea is sought in the legend of Pak-hyok-ko-sei, the first king of Silla. He was born from an egg. The 4th king of Silla, Sok-tal-hae was also found in a box (or an egg in another account) and Kim-al-ji, the founder of the royal family of Kim from the 7th King of Silla came out from a golden box. Also, the six founders of Ka-ya, old states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were born from 6 eggs respectively. Chu-mong the founder of Ko-gu-ryo state (circa 1 Cen. B.C.) is a great grand son of Hae-mo-su (as mentioned above he is a son of the heaven) and Chu-mong's mother, a daughter of the god of river (Ha-baek) laid an egg from which Chu-mong was born. From the accounts on Korean myths one finds one or two interesting implications

First, In Korean myths oviparous myths are more popularly observed in the south.

Second, In terms of time difference the oviparous myth tends to appear later than the heavenly son myth (see, chart)

中國側史書와 韓國側史書로 부터의 神話는 韓國의 古代國家 (또는 部族國家) 의 創建者에 관한 神話 인 限, 2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범주에 속한 것은 國家의 創建者인 先祖가 天帝子라는 神話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古朝鮮의 創建者인 桓雄은 天帝子였고, 扶餘 또는 東扶餘의 創建者인 海慕漱도 天帝子였다고 한다. 또한 B.C1세기頃の 斯盧 六村長의 先祖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天帝子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天孫降下神話는 알타이語系統의 言語를 사용하는 北아시아에 共同된 神話이다.

두 번째 범주의 것은 卵生神話로서 國家創建者의 先祖가 卵 또는 箱子에서 誕生하였다는 神話다. 韓國에 있어서의 이 神話의 例는 新羅初代王인 朴赫居世의 神話에서 볼 수 있다. 四代王이었던 昔脫解도 卵에서 誕生하였다. 新羅七代부터의 金氏王朝의 先祖인 金闕智는 金의 箱子에서 誕生하였다고 하며 一說로는 卵에서 誕生하였다고 한다. 또한 韓半島의 南쪽인 加耶六國의 創建者들도 各各 卵에서 誕生하였다

高句麗王國의 創建者인 朱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天帝子인 海慕漱의 아들로서 天帝의 孫(天孫)이며 그의 어머니는 水神(河伯)의 딸로서 卵을 낳고 그 卵에서 朱蒙이 誕生하였다. 以上과 같은 韓民族神話에 대한 檢討로서 두가지의 興味있는 示唆를 얻을 수 있다.

첫째 - 韓民族神話에서 卵生神話는 半島 南部에서 보편적이며,

둘째 - 時間的인 先後關係로 보아 卵生神話는 天孫降下神話보다 늦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Heavenly son myths	Oviparous myths
Huan-ung (Ca.23c.)	
Hae-mo-su (Pu-yeo).....	Chu-mong(Ko-gu-ryo 37-19 BC)
Chief of 6 village	
(before Silla).....	Pak-hyok-ko-sei(57-4 BC, Silla)
	Sok-tal-hae (2-8 AD Silla)
	Lee Al-pyong (Silla)
	Kim-al-ji (?Silla)
	Kim-su-ro (42-19 AD, Ka-ya)

According to a work of oviparous myths. quoting the essays by mythologists Kim Jai-bung mentione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oviparous myth in Asia extends:

To the north -Yakuts (Russian Maritime Region), Korean Peninsula

The legend of king shu-en, eastern coast of china

To the south - Bai-wan tribes in taiwan, Yueh tribes in Hai-nan Island

Mao kingdom in Burma

Thai tribes in Thailand

Phillipine

Sulawesi

Kalimantan(Borneo)

Java

Munda tribes in india

Tibet. Oceania

天孫降下神話

卵生神話

桓雄(古朝鮮 B.C23세기)

朱蒙(고구려 B.C 37~19)

解慕漱(扶餘)

六村長(新羅王國以前)

朴赫居世 (B.C57~4)

昔脫解 (A.D 2~8)

李謁平(新羅)

金闕智(? 新羅 )

金首露(A.D 42~19, 伽耶)

卵生神話에 관한 研究로써 神話學者인 金在鵬씨의 論文에 의하면 卵生神話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分布는 다음과 같다.

北 - 야쿠트族 (沿海州), 韓半島, 中國東海岸地方의 徐偃王神話

南 - 臺灣의 倭族, 海南道の 黎族, 버마의 毛王族, 타이의 타이族  
필리핀, 사라와지, 카스만탄(보르네오) , 자바, 印度의 문다族 티  
벳, 오시아니아

Therefore, it is clear that oviparous myths are common in Asia and more popular in South Asia. Some alleges this myth is relevant to the Tong-Son culture, bronze culture in S. Asia between 800 B.C. and christian- era.<sup>8</sup>

so, it is alleged that the oviparous myth is Southeast Asian characteristic and this ancient belief travelled by sea current running from South china sea to the northeast all the way up to the korean peninsula.

따라서 卵生神話는 확실히 아시아에 보편적이며 南아시아에 더욱 보편적이라는 바가 확실하다. 그리고 이 神話는 B.C 8세기부터 西紀前後까지 계속된 東南亞에 있어서의 靑銅器文化인 「돈손」 文化와 關聯이 있음을 示唆해 준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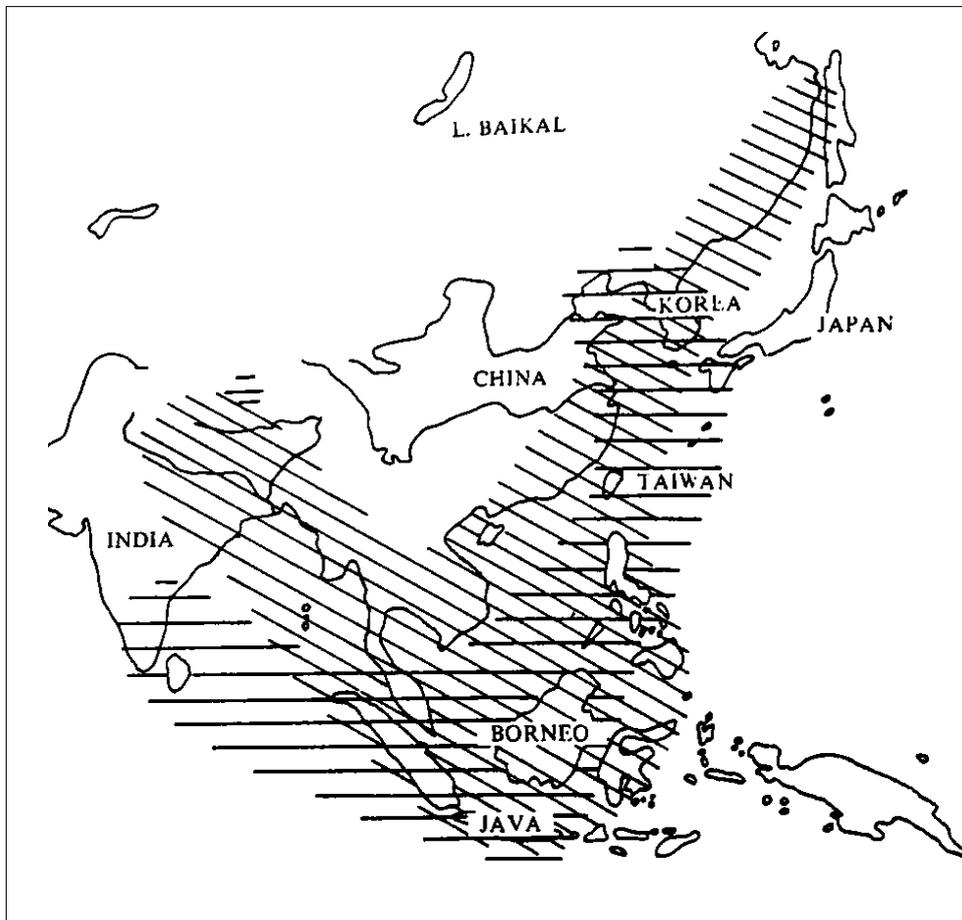
이와같이 이 神話는 東南亞的인 特徵이 있음을 示唆하며 또한 이와같이 古代信仰은 南支那海로부터 韓半島까지 北으로 흐르는 海流를 타고 傳해진 것을 示唆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In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galithic monuments in Korea, it was mentioned above that the megalithic monuments largely distributed in Asia - India, S.E. Asia, Taiwan, Korea, and this distribution overlaps with that of oviparous myths, combining the two cultures - the megalithic culture in the light of substantial civilization and the oviparous myth in the spiritual world. The two cultural elements not only overlap distributionwise but also are contemporaries that is the bronze-iron age. Therefore, it seems that the dolmen builders in Korea were sharing the same ideology with the dolmen builders in Southeast Asia.

韓國의 巨石文化遺蹟에 대한 性格을 論함에 있어 앞서 言及했던 바와 같이 巨石文化遺蹟을 크게 아시아-즉 印度, 東南亞, 臺灣, 韓國에 分布되어 있고 이 分布는 卵生神話의 分布와 겹쳐서 두 가지 文化 - 巨石文化는 이 文化의 具體的인 面을 밝혀주고 卵生神話는 精神的인 面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두 가지의 文化的인 要素는 겹쳐서 分布했을 뿐 아니라 時代的으로는 靑銅器와 鐵器併用時代와 同時代다. 따라서 韓半島에 있어서 支石墓를 만든 사람들은 東南亞에서 支石墓를 만든 사람들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所有者로 보인다.

In the study of Korean archaeology, the cluster cairn of the bronze-early iron age are commonly found in Southern Manchuria and they were developed into large, independent cairn tomb of early ruling class people in Ko-gu-ryo and Silla. The tradition of the cairn is believed to have been relevant to the early Kurgans (tombs) in Siberia, where the Altaic Languages are spoken, hence the heavenly son myth is deeply root-

8. kim.J.B., 1973, "Distibution of the Oviparous myth", Han, No.19 (Japanese)



□ DISTRIBUTION OF DOLMENS IN ASIA

\\\\\\ DISTRIBUTION OF OVIPAROUS MYTHS IN ASIA

Fig 5: Distribution of Dolmens and Oviparous Myths in Asia

ed. So the heavenly son myth was believed by Altai Language-speaking Koreans from the ancient times. And later sometime during the bronze age the oviparous myth, a new thought was introduc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 peninsula as the rice cultivation was introduced with the megalithic worship. Until then the ancient inhabitants in Korea lead the nomadic life, whereas the rice cultivating people were settled farmers. These two distinctively different traditions seem to have been separate the farmers with dolmen and oviparous myth in the south and the nomads' home for their livestock in the north. The two peoples with different life patterns became gradually mixed by inter-marriage. It happened when the descendant of Hae-mo-su (heavenly son) married egg-laying Yu-hua, the daughter of the God of Water (oviparous myth). That is the encounter of two traditions in Korea.

韓國考古學의 研究에 있어서의 靑銅器時代부터 初期鐵器時代까지의 積石塚群은 南灣州方面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고, 그 積石塚群은 高句麗와 新羅의 支配上層部의 巨大한 獨立된 積石塚으로 發展하였다. 이 積石塚의 傳統은 알타이系統의 言語를 使用한 시베리아方面의 初期渠師의 墳墓와 關聯이 있음이 틀림 없으며 天孫降下神話의 뿌리가 깊다. 따라서 天孫降下神話는 古代로 부터 알타이系統의 言語를 使用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임을 믿게 하며 그 後에 時代가 내려와 靑銅器時代에는 韓半島 南部에 巨石崇拜의 思想과 함께 稻作農業이 傳來한 것이다.

이와같이 明確히 區別되는 두 가지의 傳統은 南部에 있어서는 卵生神話와 支石墓를 가진 農耕民으로서 家畜을 치는 北部의 遊牧民과 區別된다. 이와같이 生活樣式이 다른 두 部類의 사람들이 相互間의 婚姻을 通하여 차차로 섞여서 하나가 된 것이다. 天帝子인 解慕漱가 降下하여 알을 난 柳花와 結婚하였는데 柳花는 물의 神(河伯)의 딸로서 朱蒙을 卵生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傳承의 韓國에서의 만남이다.

(8) 金在鵬 1973. 「卵生神話 分布圈」 (「韓」 19輯 日文) 參照

## [六]

이런 것으로 보아서 印度方面으로부터 그리고 히말라야方面으로부터 支石墓를 만든 巨石文化人들은 靑銅器文化와 稻作文化와 卵生神話を 가지고 南方海洋루트에 의하여 東아시아로 移遷해 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극히 小數라서 韓民族의 形成 또는 韓民族文化形成에 있어서 相當한 役割이 微微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存在를 看過할 수 있고 無視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支石墓를 비롯한 巨石文化의 遺蹟은 韓半島에서 萬을 넘으리라고 하니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명히 新羅·加羅의 國家建設에 있어서 主役을 擔當한 사람들은 卵生神話を 가진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南滿州라고는 하지만 鴨綠江邊에서 高句麗 朱蒙王의 母系는 분명히 卵生神話を 가진 사람들이었다. 또한 支石墓와 卵生神話は 南滿州를 북한으로 하여 그 以北의 北滿州 또는 시베리아, 蒙古方面에는 分布되지 않았다. 要컨대 朱蒙王의 誕生神話は 北의 天孫降下神話와 南의 卵生神話의 南滿州方面에서의 만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印度教育省 考古調査局長 「H·사카르」 씨는 그의 論文 「印度의 巨石文化」 (Megalithic cultures in India)에서 印度의 巨石文化는 「데칸」 高原에 集中되어 있는데 그 建立年代는 紀元前 10世紀부터 紀元後 3世紀까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韓半島의 巨石文化 上限年代를 紀元前 7世紀頃이라고 한다. 면 印度亞大陸로 부터 韓半島로의 傳播에 300년- 1世代30년을 쳐서 10世代가 걸린 셈이 된다.

결국 印度亞大陸에서 일시에 사람들이 韓半島로 移動해 온 것이 아니라 10世代에 걸쳐서 子子孫孫하여 移動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移動 「루트」가 巨石文化와 卵生神話의 分布圈으로써 印度亞大陸에서 말레이半島, 인도네시아의 자바, 스마트라, 셀레베스 등과 타이, 라오스, 臺灣, 中國 東海岸의 浙江省과 山東半島, 韓半島로써 결국 보르네오海域과 南支那海, 東支那海, 黃海를 따라 徐徐히 東아시아로 北上 分布된 것이다.

近來에는 學界에서 環黃海文化圈 또는 環東支那海 周邊文化圈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文化圈을 생각한다는 것은 南方의 東洋 「루트」를 따라 北上하여 黃海周邊 또는 東支那海周邊 地域에 分布된 文化를 생각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文化의 標幟가 되는 것이 첫째로 支石墓를 위시한 巨石文化의 遺蹟이다.

黃海周邊에서 海心を 向하여 길게 突出한 半島는 中國大陸에서는 山東半島, 南滿州에서는 遼東半島, 韓半島에서는 甕津半島인데 黃海周邊에서 가장 始原的이며 가장 巨大한 支石墓의 遺蹟은 이러한 세 半島地帶에 集中的으로 分布되어 있다.

그리고 東支那海周邊으로 말하면 中國大陸에서는 浙江省, 臺灣, 海南島 등이며 南支那海 또는 보르네오海域 周邊으로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자바, 스마트라 등의 諸島와 말레이半島 등이다.

또한 印度亞大陸에서는 德坎高原地帶와 히말라야地方 그리고 버마와의 境界地帶에 分布되었다고 하지만 그 分布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Magalithics occur sporadically in different parts of northern India and parts of what is now politically known as Pakistan Baluchistan and the Makran Coast……

라고 「H·사카르」 씨가 傳하듯이 파키스탄의 各地에도 分布되어 있고 특히 인더스江 流域에 그 分布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形態에 있어서나 副葬物에 있어서나 印度亞大陸 그리고 히말라야地方의 것과 通한다는 것이다. 물론 파키스탄의 이러한 巨石文化의 遺蹟은 印度亞大陸의 히말라야地方의 것과 通하고 다시 이 파키스탄의 巨石文化의 遺蹟은 東南亞의 巨石文化遺蹟과도 通한다는 것이다.

This megalithic tradition, according to many scholars, has affinity with the south-east Asiatic tradition. (H·Sarkar)

또한 東南亞의 巨石文化는 支石墓에 있어서나 立石에 있어서나 東아시아의 그것들과 通한다는 것이 金兼模 教授의 주장이다

결국 이와같은 事實은 史前에 인더스 또는 인더스보다도 더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印度亞大陸, 인도네시아, 東南亞, 東아시아를 잇는

高文化地帶가 形成돼 있었던 것을 推測케 하는 것이며 어느 高文化를 가진 사람들의 移動을 推測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世界史的으로 어떤 갈래의 사람들이었나는 確實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暫定的으로 巨石文化人이라고 할 수 밖에 없지만, 그 巨石文化人들은 韓半島에 萬으로 헤아리는 巨石文化遺蹟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新羅·加羅의 建國에 있어서 主役을 맡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며, 高句麗 朱蒙王의 母系는 그 사람들이다. 요컨대 巨石文化人은 卵生神話人이며 卵生神話人은 巨石文化人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民族史的으로 아시아史的으로 또한 世界史的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問題로써 設定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모르면 支石墓에 대하여 모른다는 말이 되고 卵生神話에 대하여 모른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다시 韓民族의 形成 또는 韓民族文化의 形成에 있어서의 基礎的인 條件에 대하여 거의 모른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에 관한 한가지 例로써 韓國語는 우랄·알타이語族에 所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充分한 것일까? 韓國語는 과연 알타이語的인 特性을 몇가지 가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韓國語가 알타이語族인 통구스語·蒙古語·土耳其語와 같은 共同祖語에서 갈라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만치 분명한 것은 아니다. 端的으로 말해서 韓國語는 알타이語族인 통구스語·蒙古語·土耳其語와 같은 점보다도 같지 않은 점이 많은 것인데 무리하게 같은 것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韓民族文化가 農耕的인데 이것을 遊牧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支石墓와 卵生神話를 南方에서 온 文化인데 北方알타이方面에서 傳來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韓民族史는 chapters부터 다시 써야하며 특히 太平洋時代를 맞이한 韓民族으로서 民族史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그 必要性에 대하여서는 위에서言及한 바로써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그 具體的인 作業은 다음의 機會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 II

燕岐郡의 諸山城과 周留城에 대하여



일찍이 申采浩先生과 黃義敦先生은 周留城은 燕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後 周留城은 燕岐라고 하는 이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은 틀린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분명 周留城은 燕岐라고 한 그분들의 말에 틀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一拙稿 〈全義周留城考証〉에서 -

燕岐郡의 山城은 二群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北部의 車嶺山脈 속 全義舊邑을 中心으로 하여 築造된 山城群과 둘째는 美湖川 南으로 錦江東쪽에 築造된 山城群이다.

北部의 車嶺山脈 속에 築造된 山城을 列舉하면 北으로부터 (1)高麗山城 (2)高山山城 (3)龍子山城 (4)鵲聲 (5)李城 (6)金峴城 (7)鄉校 뒤 土城 등이며 美湖川 南으로 錦江을 따라 그 東쪽에 築造된 山城은 報恩-懷仁-文義-美江등 忠北地區의 山城群을 이어 燕岐郡東面으로 들어서 (1)黃中山城 (2)出東山城 (3)唐山城 등이며 여기에 元師山城을 넣어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北部의 車嶺山脈 속에 築造된 山城들 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山城들은 山脈의 奧地속에 築造된 것은 하나도 없고 全義舊邑周邊으로서 車嶺山脈의 南과 北을 잇는 舊街道에서 至近한 距離에 솟은 山頂에 築造되었다.

즉 이러한 山城들은 北의 仁川, 廣州, 利川方面에서 南의 公州 또는 儒城으로 通하는 舊街道에서 至近한 距離에 솟은 山頂에 築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山城에서는 山城 밑으로 通한 舊街道를 손바닥 보듯이 굽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山城이 築造된 目的은 우선 蓋鹵王이 漢山王都에서 長壽王이 이끈 高句麗軍의 攻擊을 받아서 죽고 文周王이 南來하여 公州로 遷都한 以來- 즉 熊津王都時代였던 475년頃부터 538년까지의 사이에 築造된 것으로써 公州王都의 守護를 위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부연해 보면 全義舊邑은 公州 北으로 28軒의 距離에 불과하다. 따라서 北으로부터의 高句麗郡에 의하여 車嶺山脈 속의 全義舊邑을 突破 당하게 되면 公州王道가 危險했던 것이다.

文周王의 南來 당시의 高句麗의 領域은 車嶺山脈의 線까지로 稷山-安城-平澤의 線까지는 물론 天安도 그 領域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高麗山城 즉 高句麗山城이 天安地區의 南端이며 全義地區의 北

端으로서 車嶺山脈 北쪽어구에 築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山城이 築造된 高麗山은 옛이나 지금이나 天安郡과 燕岐郡의 境界가 되고 天安地區에서 燕岐地區로 넘어오는 舊街道는 이 山城 밑으로 通하고 있다. 그리고 全義地區의 七個山城은 車嶺山脈의 南과 북을 잇는 이와 같은 舊街道와 關係가 있는 것으로써 이와같은 山城이 없다면 全義邑에서 南으로 28軒-70里에 불과한 公州의 熊津王都가 직접 威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要컨대 天安, 牙山, 木川 어디서나 公州로 가고 儒城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山城 밑을 通過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百濟王都는 聖王에 의하여 熊津에서 泗泚-扶餘로 옮겨갔다. 538년에 있었던 일이며 이것이 泗泚王都다.

泗泚王都 역시 北으로 錦江을 건너 車嶺山脈이 달리고 泗泚王都의 江北-車嶺山脈 속에 築造된 山城이 任存城이다. 任存城은 禮山大興의 鳳首山頂에 築造되었으며 泗泚王都에서 北으로 30軒의 距離에 불과하다. 牙山方面에서 禮山을 거쳐서 靑陽, 泗泚王都를 잇는 車嶺山脈 속으로 난 舊街道와 關係가 있는 山城으로써 王都가 熊津에서 泗泚로 옮겨가면서 泗泚王都를 直接 守護하기 위하여 築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任存城은 周 3,000米가 넘는 巨大한 石城이지만 全義의 高山山城 또한 周 3,000米가 넘는 巨大한 石城이다.

660년 6월의 羅唐軍의 攻擊으로 泗泚王城이 陷落하고 이어서 熊津舊王都도 陷落하였다. 義慈王과 太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唐軍에 잡혀서 唐으로 끌려갔지만 百濟軍은 이에 屈하지 아니하고 百濟復興을 위하여 羅唐軍과 싸웠다. 660년 6월부터 662년 8월까지 계속되었던 이 戰爭에 있어서 百濟軍의 根據地로서 周留城의 이름을 傳하고 있지만 周留城의 具體的인 位置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確實하지 못하다. 어떤이는 舒川郡韓山の 乾支山城을 말하고 어떤이는 全羅北道 扶安郡의 遇金岩山城을 말한다.

그러나 첫째로 660년 6월의 泗泚王城에 대한 羅唐軍의 攻擊, 그리고 熊津舊王都에 대한 羅唐軍의 攻擊은 唐軍의 德積島, 新羅軍의 廣州·利川 등 北의 根據地로부터 陸路에 의하여 南으로 攻擊한 것이 아니라 唐軍은 德積島에서 錦江河口를 迂回하고 新羅軍은 廣州,利川 등에서 報恩의 三年山城을 迂廻하여 東·西에서 狹攻하였다.

그뿐 아니라 660년 6월 이래로 662년 8월에 周留城이 陷落하기까지 德積島에서 仁川·南陽으로 上陸하여 陸路로 天安-全義를 거쳐서 熊津舊王都로 가는 街道, 그리고 禮山-靑陽을 거쳐 泗泚王都를 가는 街道를 羅唐軍이 使用한 흔적이 없다. 물론 이 期間에 廣州·利川의 新羅軍 또한 이러한 便利한 街道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 이 期間동안 이와같은 便利한 街道가 羅唐軍에게 완전히 杜絶되었다.

牙山-禮山-靑陽-泗泚를 잇는 街道는 任存城의 百濟軍에 의하여 杜絶되고 天安-全義-熊津을 잇는 街道는 全義諸山城의 百濟軍에 의하여 杜絶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羅唐軍은 錦江流域의 泗泚王都和 熊津舊王都를 東西로 挾攻하여 占領함으로써 百濟國을 南北으로 分割한 形勢가 되었고 百濟軍은 泗泚·熊津의 唐留軍을 逆으로 包圍한 態勢를 取한 것인데 이 態勢를 取할 수 있었던 것은 熊津과 泗泚의 北으로 車嶺山脈이 달리고 車嶺山脈을 南北으로 잇는 要衝으로서 禮山大興에 任存城이 健在하고 燕岐全義地區의 諸山城이 健在했기 때문이다.

한편 泗泚·熊津의 唐의 占領軍으로서도 北의 德積島, 廣州, 利川 등의 根據地와 連絡하고 連繫를 짓는데 泗泚-靑陽-禮山-牙山の 便利한 街道를 利用할 수 없었고 熊津-全義-天安의 便利한 街道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은 任存城과 燕岐全義地區 諸山城의 百濟復興軍 때문이다.

결국 任存城과 함께 燕岐全義地區의 百濟復興軍 때문에 泗泚와 熊津의 唐留軍은 陸路로 北上해서 高句麗의 南界를 칠 수 없었고 新羅는 西쪽의 泗泚·熊津의 唐留軍에 物資를 보내는데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實況을 傳하는 바가 日本書紀의 다음과 같은 記事일 것이다.

是月唐人伐高麗. 高麗乞救國家. 仍遣軍將. 據疎留城.

由是唐人不得略其南界. 新羅不獲輸其西壘 (日本書紀 天智元年條)

결국 周留城 즉 疎留城이라는 것을 泗泚·熊津의 西쪽이나 南쪽 멀리 韓山이나 扶安이라면 韓山과 扶安의 百濟軍과 日本軍 때문에 泗泚와 熊津의 唐軍이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치지 못할 까닭이 없고 新羅에서 西쪽에 있는 泗泚와 熊津으로 物資를 보내지 못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任存城은 泗泚의 北에 있었고 周留城은 熊津의 北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즉 熊津에서 高句麗南界로 가는 途中에 位置한 要衝으로서 燕岐全義地區의 周留城이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三國史記에 의하면 661년 3월에 新羅의 大軍이 古沙比城을 치고 다시 豆良伊城을 攻擊하였다고 傳하는데 古沙比城은 「고사재」 또는 「고소재」로 俗稱되는 東國輿地勝監 全義條의 「高山山城」일 것이며 「豆良伊城」은 「豆仍只城」으로서 燕岐城일 것이다. 「豆仍只」가 百濟時代의 燕岐에 대한 古地名이었기 때문이다.

三月五日. 至中路. 品日分摩下軍. 先行往豆良伊城南. 相營地. 百濟人望陣不整. 猝出急擊不意. 我軍驚駭潰北. 十二日. 大軍來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伊城. 一朔有六日. 不克. 四月十九日. 班師

결국 古沙比城外 는 「고소재」 밖으로써 오늘날 全東驛의 갈거리方面이며 豆良伊城南은 西面生川里에서 全東面松城里까지의 金峴城 - 李城 - 鵲城의 南쪽 狹谷을 意味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範圍를 「燕岐술재」 「全義술재」라고 하는데 「燕岐술재」 「全義술재」는 金峴城 - 李城 - 鵲城의 南쪽 狹谷의 部分이니 앞서의 日本書紀가 傳한 「소루재」(疏留城)는 이 「술재」(松城)에 대한 日本人들의 訛音表記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술재」(松城)의 金峴城·李城·鵲城을 百濟軍과 倭軍이 지키고 있다면 德積島, 廣州, 利川 등에서 熊津으로 가는 길은 물론 儒城으로 가는 길도 杜絶될 수 밖에 없고, 新羅가 熊津과 泗泚의 唐留軍에게 物資보내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要컨데 周留城의 位置問題를 생각할 때 泗泚·熊津의 唐留軍이 北上하여 高句麗男系를 칠 수 없었던 理由와 新羅가 西쪽의 泗泚·熊津에 物資보내기가 至難했던 理由를 생각하여야 하는데 그 理由로는 泗泚北의 任存城과 熊津北의 燕岐全義地區의 諸山城을 지키고 있었던 百濟軍의 抗戰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任存城과 함께 燕岐全義地區 諸山城에 高句麗와 日本에서 後援軍과 物資를 보내는데 移用되었던 西海의 港口로는 牙山灣 깊숙이 安城川의 河口南쪽에 위치한 「白石浦」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白石浦」에서 全義까지는 32浬, 任存城까지는 33浬의 距離로서 1日行程未滿이다. 日本書紀에서 「白村江」이라고 쓰고 「ハクスキノエ」(hakusuki-no-e)라고 읽지만 이 ha-ku-su-ki-no-e가 「白石浦」 즉 bak-suk-po에 대한 日本人의 訛音이며 「江」 「浦」에 대한 日本語가 「エ」(e)

다. 「ノ」(no)는 助辭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白石浦」(백석포)를 日本人이 읽으면 「ハクスキノエ」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言語問題보다도 牙山灣의 白石浦에서 無限川을 따라가면 쉽게 大興의 任存城에 갈 수 있고 任存城에 가면 林川의 加林城에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白石浦에서 舊溫陽邑으로 나와 고개를 넘으면 廣德·豐歲를 거쳐 쉽게 全義로 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任存城과 周留城 즉 燕岐全義地區의 諸山城에 대하여 생각하는 한편 白村江 또는 白江을 牙山灣의 白石浦로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三國史記 金庾信傳의 두가지 疑問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金庾信傳에 의하면 7월 17일에 征伐을 위하여 文武王과 金庾信은 熊津州에 次하고 8월 13일에 豆率城에 至하였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한편 日本書紀에 의하면 8월 13일(甲午)에 百濟豐王은 日本救將이 萬餘名을 이끌고 바다 건너 倒着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待饗키 위해서 「白村」으로 향한다. 17일(戊戌)에는 羅·唐 聯合軍이 王城을 圍繞하고, 唐船一白七十隻은 白村江에 陣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7월 17일 熊津州(公州)에서 周留城征伐을 謀議한 唐水軍이 熊津江을 나서서 白村江口에 陣烈하기까지 長長 一個月이라는 期間이 지났고 陸路로 出發한 新羅軍이 豆率城에 到着하는데 約 二十五日이 걸렸으니 白村江은 熊津과 泗泚에서 가까운 韓山이나 扶安의 邊山半島일 까닭이 없고 牙山灣의 白石浦가 아니면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豆率城(두솔성)을 天安方面이 아니면 아니되는 것이다. 이 豆率城은 三國史記에 道隆城이라고 表記된 天安이며 兜率城이라고도 表記되는 天安의 古地名이다.

水軍은 熊津州에서 錦江을 따라 내려와 西海를 돌아서 牙山灣의 白石浦로 가는데 約 1個月이 걸렸고, 文武王과 金庾信이 이끈 陸軍은 熊津州에서 報恩의 三年山城을 거쳐서 李川으로 나와 車嶺山脈의 北인 天安方面으로 오는데 約 25日 걸린 것이다.

周留城을 城南에서 攻擊하다가 거듭 失敗했던 羅唐軍은 이것을 城北인 天安으로부터 攻擊한 것일 뿐 아니라 662년 8월 以前에 錦江南의 百濟城이 거의 沒落했음으로 서둘렀던 당시의 劉仁軌가 錦江流域의 戰線을 安城川流域으로 北上시키고 德積島를 위시한 漢江流域의 根據地와 合勢할 수 있는

態勢를 取한 것이다.

劉仁軌의 이와같은 戰略으로 白村江에서 日本艦隊는 全滅하고 周留城도 陷落하여 百濟는 完全히 滅亡한 것이다.

以上과 같이 燕岐軍의 諸山城들은 熊津王都時代에는 直接 王都의 守護城으로서의 役割을 했고 660년 6월에 泗泚王城과 熊津舊王都가 沒落한 後에는 三年間을 任存城과 함께 百濟復興軍의 抗戰의 根據地로서의 役割을 한 것이다.

오늘날 거개의 研究家들은 豆良伊城, 豆率城, 疏留城등이 모두 周留城에 대한 表記라고 하지만 어떻게 豆良伊城이 周留城이며, 豆率城이 周留城이며 疏留城이 또한 周留城이겠는가?

全義北端의 高麗山城부터 全義南端의 金峴城까지는 10籽의 路離인데 이 10籽의 距離가 1分の 틀림도 없는 正子午線으로서 이 正子午線上에 北에서부터 高麗山城-鄉校뒤 土城 - 鵲城 - 李城- 金峴城의 五個城이 一例로 「줄」을 섰다. 全國 어디를 가나 正子午線에 五個山城이 一例로 「줄」을 선 예를 없을 것이며 世界에도 그런 예는 없을 것이다.

결국 「周留城」은 「줄재→주루재」에 대한 唐人의 表記로 보아야 할 것이다. 鄉校뒤土城을 中心으로 하여 正北5籽地點에 高麗山城이 있고 正南5籽地點에 金峴城이 있다. 要컨대 正子午線에 五個山城이 一例로 「줄」을 선 것이다. 그리고 廣州-天安-熊津 또는 廣州-天安-儒城을 잇는 舊街道는 一例로 「줄」을 선 이 五個山城 밑으로 通하고 있다.

물론 「周留城」이라는 表記가 「줄재→주루재」에 대한 表記라고 断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断定할 수 도 없으니 全義地區의 五個山城이 正子午線에 一例로 「줄」을 선 位置라는 事實만을 우선 問題 提起로 써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 Ⅲ

鳥致院 瑞光庵 眞牟氏三尊石佛碑像에 대하여





碑巖寺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國立中央博物館藏)

碑巖寺彌勒半跏思惟石像  
(國立中央博物館藏)



碑巖寺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像  
(國立中央博物館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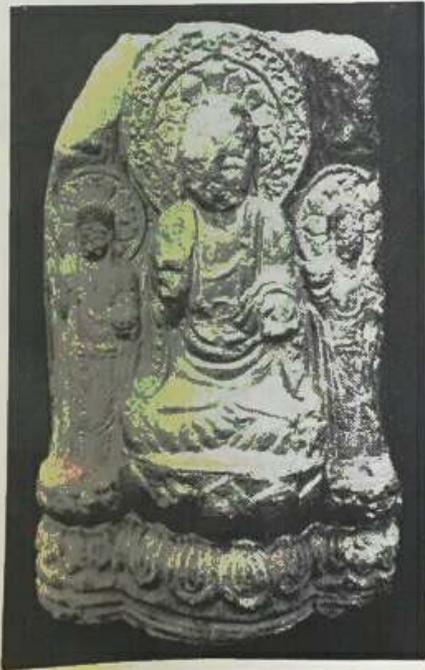


蓮花寺戌寅銘半跏思惟三尊石像

蓮花寺戌寅銘阿彌陀石像



公州正安面三尊石像  
(東國大博物館藏)



蓮花寺七尊石像



瑞光庵千佛碑像 (國立公州博物館藏)

1960년 7월부터 1961년 7월 까지의 1년 사이에 燕岐郡에서는 稀貴한 石佛像 7具가 發現하였다. 이 石佛像들은 燕岐郡全東面多方里의 碑岩寺를 中心으로 해서 半徑 2軒의 範圍를 原位置로 한 것으로서 他處에서는 全然 發現한 例가 없는 세상에서도 稀貴한 石佛像들이다.

이 石佛像들에 대하여서는 黃壽永 先生과 秦弘燮先生의 解說이 있고 碑岩寺의 창건에 대한 筆者의 論說도 있으니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省略하고 특히 鳥致院端光庵에서 發現한 「瑞光庵眞牟氏千佛碑像」에 대하여 解說과 곁들여 眞牟氏에 관한 歷史事實을 略述해 보기로 하겠다.

### (一)

動亂이 한창이던 1951년 3 ~ 4월경, 鳥致院사람들은 市場시궁창에 노아졌던 디딤돌을 밟고 다녔다.

그러나 디딤돌로 알고 아무렇게나 밟고 다녔던 그 돌맹이가 보통의 돌맹이가 아니라 後日 國寶第 108號로 지정되어 현재 公州博物館에 所藏된 〈瑞光庵眞牟氏三尊千佛碑像〉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몹씨도 기구했던 運命의 이 千佛碑像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石佛碑像 發現하게 된 經緯와 實體는 어떤 것일까? 이점에 대하여 먼저 黃壽永 先生의 說明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 瑞光庵石像 一個

이 石像은 燕岐石像의 調査 중에서 最終에 檢出된 것으로 크기에 있어서나 保存狀態에 있어서 最大 最完의 것으로 一九六一年 七月 三日에 秦弘燮 教授와 筆者와 鄭明鎬氏의 三人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石像의 存在를 筆者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이보다 二日 전인 七月 二九日 서울市內 鍾路區 仁寺洞 原在 古物商 博古當에서의 일이다. 이날 우연히 이곳에 들렀다가 마침내 商店內에 머무르고 있던 古物仲介人 李根秦氏外 一人과의 對話에서 이 石像의 所在를 探知할 수가 있었고 그 후 猶豫함이

없이 現地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는 마침 蓮花寺石像을 조사한 직후이어서 이와 같이 連鎖的으로 續出하는 同系石像의 出世에는 筆者 자신이 놀라기도 하였고 한편 歡喜와 滿足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 作品이야말로 前年에 비롯한 燕岐石像 調査의 皮날레를 장식하여 줄 수 있을 만큼 가장 優秀하였으며 또 本格的인 碑像으로서의 初有의 完品이었다.

그런데 이 石像이 發見된 瑞光庵인즉 鳥致院에서 서울街道를 따라 약 半 km 北上하다가 街道에 접한 「내창이」 部落의 後端에 자리잡은 草家一棟의 私設法堂으로서 所在地는 鳥致院邑 瑞倉洞 一區이다. 이 庵子의 創建年은 解放 직후라 하는바 調査當時에는 李仁川(女 七五)과 安升圭(南 五四)의 母子 二人만이 居住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石像은 草家法堂 마당 西遇에 작은 石壇을 만들고 그 위에 洋灰로써 固定되어 있었는데 이 石像 또한 上 記한 蓮花寺石像과 같이 他處에서 運搬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場所를 追窮함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 내용인 즉 약 二〇年 전인 一九五一年 三·四月頃 動亂의 爆擊을 받은 鳥致院 市長 下水 道에서 이 石像은 石橋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男信徒(料 理士) 一人의 傳言에서 알고 李仁川女史를 비롯한 女信徒 三人이 釀金하여 八人 목도로써 邑外인 이곳에까지 運搬하여 「五百羅漢」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供養은 아니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市長內의 場所는 日帝時 東本願 寺 앞이라고도 하며 원래 日人이 所藏하였던 것이라고 附言하였다.

그리하여 이 石像이 원래 鳥致院 邑內에서 戰災를 모면하고 再收拾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으나 그보다 어느 場所에서 搬出된 것인지 그것을 짐작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다시 後述하려는 바와 같은 樣式이나 記銘에 의하여 이 石像 또한 蓮花寺石像과 같이 碑巖寺와 隣近한 古代寺址에서 日帝時 運搬된 것으로 推定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確實한 證憑資料가 없는 現狀으로서는 다만 推定에 그칠뿐인바 이에 대하여서는 金후의 調査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石像은 第一次調査 직후 文教部에 보고되어 應急策으로서 國寶로 假指定되었고, 그후 九月 四日 개최된 保存委員會에서 正式으로 國寶指定이 議決되었으며 다시 새로운 文化財保護法에 따르는 再整理에서 國寶 第一〇八號로 指定되었다. 동시에 이 石像은

保管者の 自發的인 意思를 따라서 發見 一年 후인 一九六二年 一〇月 一三日 國立博物館 公州分館으로 移管되어 同館陳列至 中央間에 安置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石像 또한 場所를 바꾸면서 轉轉하다가 마침내 碑巖寺石像과 함께 모두 國庫에 歸屬되었던 것이다.

이상 一九六〇年 九月부터 翌年 七月末에 이르는 약 一一個月間에 碑巖寺에서 着眼된 石像에서 비롯하여 隣近의 寺庵과 民家 등 三處에서 合計 七個의 古代石像을 調査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同代同系의 作品임과 地域的인 親緣을 갖고 造成된 희귀한 四面石像 내지 碑像系造形 印에서 더욱 注目을 모았으며 동시에 七個石中 四個石에 銘文이 記刻되어 있어 한층의 學的 價値와 注目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收拾直後 當局의 注目을 받아 그 중 二個石이 國寶로 他 二個石이 寶物로서 指定되어 國家的 保護를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들 指定物件만은 國庫補償을 거쳐 國有化됨으로써 國立博物館 本分館에 陳列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 이들 石像들이 모두 동일한 蠟石系 石材를 材料로 삼아서 造成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樣式이나 銘文에서 미루어 거의 때를 같이하여서 一群의 發願 施納의 香徒들과 同系의 佛師에 의하여 同一地區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미루어 燕岐라는 하나의 地域的인 特殊性 및 그 造成 당시에 이곳을 根據로 삼던 一團의 有力者들의 性分과 그들의 政治的, 社會的 背景까지도 石像樣式의 時代的 特徵과 더불어 考察되어야 함을 調査와 收拾의 經過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本論에서는 次項에 이르러 주로 各石像의 樣式 기록에 重點을 두고 此項에서의 順位를 따라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 瑞光庵三尊千佛碑像

(國寶 第一〇八號 國立博物館 公州分館 所藏)

이 石像은 燕岐石像中 最大의 것으로서 調査順序로 보아 最終에 着眼된 것이다. 상하 二石으로서 蓮花臺石과 身部가 一部이며 頂部에 얹힌 二段形 天蓋가 別石이다. 그리하여 一部 破損이 있기는 하나 거의 完形을 간

직하고 있어 碑像樣式의 原貌를 보여준은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既述의 諸像이 모두 小品으로서 龕佛로서의 四面形式 또는 群像單面의 小石像으로서의 規模이었음에 비하여 이것은 中國 六朝代에 비롯하여 唐代에 들면서 한층 流行하던 碑像樣式을 따르는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石像은 單瓣의 仰蓮圓座 위에 세워졌는데 蓮瓣의 彫刻은 側面에서 그치고 後面에는 아니 보인다 이같은 半圓形 連坐는 既述의 正安面 三尊石像 또는 蓮花寺 七尊石像(後面까지 蓮花座가 돌고 있다)에서 그 同系樣式을 볼 수 있다.

身部는 長方形의 碑身形을 이루고 그 下部 중앙에 三尊像을 陽刻하였으며 그 兩側에는 각 四행의 銘文을 記刻하고 있다. 그리고 三尊과 銘文以上의 全面을 一〇段으로 나누었는데 上 七段에는 각 二〇軀의 작은 如來坐像을 彫刻하였다. 이같은 小像의 配置는 側面 각 一四段(各段八軀)後面 一六段(各段一二軀)으로 四面全體에 조각되어 空間을 남기지지는 않았다. 前面의 三尊樣式은 他石像 예컨대 碑巖寺 (一)癸酉像 같은 곳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한데 다만 三尊이 모두 頭光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本尊은 方座에 結跏趺坐 하였으며 무릎 밑과 下端에 蓮花座가 있고 그 사이에는 裳懸座의 樣式을 각하였다. 頭部는 破失되었으며 通肩衣의 가슴에는 卍字가 보이고 手印은 碑巖寺石像의 本尊과 같다. 兩菩薩像은 둥근 仰蓮座에 섰으며 上裸이고 下半身에는 裳衣와 X字로 교차된 天衣가 있다.

銘文은 單線으로 區劃되어 좌우 各四間에 陰刻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자 一·二cm)

(向右側)

歲在癸酉年四月十五日<sup>香?</sup>□  
 徒釋迦及諸佛菩薩像造  
 石記 是者爲國王大  
 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

(向左側)

造之 香徒名 爾次乃眞  
 牟氏<sup>奢</sup>上生<sup>奢</sup> 仁次<sup>奢</sup>□  
 宣<sup>奢</sup>贊不<sup>奢</sup> 式使<sup>奢</sup>□□

□雀□□等二百五十人?

다음에 屋蓋石은 長方形 二段을 이루는 一石造로서 上下段 四面과 裏面에도 身部와 동일한 小如來像帶가 있다. 下段檐端은 波紋屈曲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中國 石像에서 보는 바와 같은 帳幕形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上段 四隅와 中央前後 各 六處에 方孔이 있음은 이곳에 裝飾具가 挿入되어 있었을 것으로 推定되며 四隅 柱너 끝에 구멍이 있음은 鈴鐸을 느리었던 痕迹으로 보고자 한다. 이같은 二段屋蓋樣式은 中國 石窟의 造像 또는 日本 法隆寺本尊 天蓋(三尊 또한 法隆寺의 것과 비교된다) 同橘夫人廚子에서 볼 수 있으며 國內에서 近年에 調査된 舍利容器(예컨대 松林寺塼塔 또는 感恩寺 西塔發見) 등 金銅工藝品의 遺例와 後代의 天蓋形佛座(예로서 安東 鳳停寺 極樂殿이나 醴泉 龍門寺 大藏殿 佛座屋蓋樣式)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 새겨진 小佛像帶는 天佛信仰에 따르는 天佛의 表現으로 해석되는바 石像에 造成된 天佛遺例로서는 아마도 此例가 最高의 作品인가 한다 (「韓國佛像의 研究」 三和出版社刊) 에서

## (二)

그러면 다음으로 이와같이 稀貴한 天佛婢像을 施納했던 眞牟旻-百濟眞氏は 百濟에 있어서 어떠한 氏族이었으며 歷史적으로 어떠한 活躍을 한 氏族이었을까? 이런 것이 問題가 될줄 안다. 이 問題에 대하여 拙文 〈百濟眞氏와 任那問題의 本質- 應神天皇의 出自〉에서 그 大충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그리하여 한때 鳥致院 사람들을 위하여 시공장에서 디딤돌노릇을 한 이 石佛像이 石佛像 自体로서 얼마나 귀하고 歷史적으로 얼마나 귀한 石佛像인가 再確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로 앞서 黃壽永 先生의 說明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石像의 原位置가 대개 鳥致院邑에서 西쪽으로 10軒의 距離인 生川里 近處로서 車嶺山脈 南쪽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生川里는 공주읍에서 北으로 16軒의 거리에 불과하다.

결국 이 石像은 生川里 近處의 原位置에서 내를 따라 동쪽의 鳥致院邑

까지 왔다가 다시 公州邑으로 돌아가 公州博物館 所藏이 되었지만 眞牟氏에 의하여 施納된 石像이 公州北 16秆地點인 車嶺山脈南의 生川里 近處를 原位置로 하였다는 事實은 歷史적으로 아무리 그 意味를 強調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서 百濟에 있어서 眞牟氏는 第一의 豪族으로서 代代로 公州 즉 熊津을 根據로 하고 있었던 豪族이었다는 歷史的 事實이 確實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百濟에 있어서 五部五方의 制度가 確立된 것은 百濟末期의 泗泚王都時代로서 이 時代에 있어서 「北方을 熊津城이라고 한다」 (北方曰熊津城)라고 周書와 北史가 傳하듯이 北方이 熊津城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熊津을 根據로 했던 百濟眞氏는 百濟歷代王의 장인이었고 百濟王은 대개 百濟眞氏의 사위 또는 外孫이었다. 즉 實在가 確實한 近肖古王과 近仇首王이 眞氏의 사위였고 枕流王과 辰斯王은 外孫이었다. 그리고 辰斯王 다음의 阿華王이 또한 眞武 즉 眞氏의 사위였다.

요컨대 眞氏는 百濟第一의 豪族으로서 代代로 熊眞을 根據로 하고 그 領域으로서 北은 車嶺山脈을 境界로 하고 南은 萬頃江流域까지를 領域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眞氏-즉 眞牟氏의 千佛碑像이 鳥致院에서 發現할 수 있고 또한 그 原位置가 公州北 16秆-즉 40里距離인 生川里 近處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代代로 眞牟氏의 根據는 三國史記·百濟本紀의 「北部眞會」 「北部眞果」 등에 의해서 北部-즉 「北方熊津城」 임을 알 수 있지만 眞牟氏의 千佛碑像이 公州北으로 車嶺山脈南인 生川里 近處를 原位置로 하고 다시 生川里로부터 東으로 10秆未滿인 鳥致院에서 發見하였으니 公州 즉 熊津이 代代로 眞氏로 根據였다는 바가 確實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文獻史學的인 立場에서 보아도 그렇거니와 다시 考古學的으로 보아도 現物인 千佛碑像으로 보아서도 그렇다는 뜻이지만 要컨대 熊津이 百濟時代에 있어서 眞氏의 根據地였음이 確實한 것이다.

그런데 日本書紀는 雄略廿年條과 廿一年條에 걸쳐서 高句麗軍에 의한 蓋鹵王 敗亡의 事實을 如實히 傳하였을 뿐 아니라 奇異하게도 日本 雄略王이 南來한 文周王에게 久麻那利 즉 熊津의 땅을 주어 百濟國을 救興하였

다 傳한 것이다.

도대체 忠淸南道の 公州땅-熊津을 日本의 雄略王이 어떻게 文周王에게 줄 수 있었던 말인가? 그리하여 百濟를 救興시켰다니 말이나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日本書紀의 日本書紀적인 歪曲으로서 何等 考慮할 價値도 없는 꿈속에서 안개를 잡는 架空譚 같지만 日本書紀가 明記하고 있는 이 記事는 결코 粗忽히 할 記事가 아니다. 왜냐하면 日本에 건너가 倭를 征服하고 大和正權을 樹立한 사람들이 熊津眞氏의 갈래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熊津眞氏가 그들과 緣故가 있는 熊津땅을 文周王에게 주어 救興하게 하였다고 한 것이니 말이다.

이와같은 歷史事實을 筆者는 이미 10여년전에 日本史學界를 통하여 論文으로 밝히고 著書로 밝혔지만 百濟時代를 통하여 熊津이 百濟眞氏와 緣故가 있는 領域이었다는 事實을 明確히 밝히지 못하면 實質적으로 日本初代王인 應神이 百濟眞氏이며 第二代가 履中, 第三代가 反正, 第四代가 安興, 第五代가 雄略으로서 그들이 百濟眞氏의 갈래라는 것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三國史記에 의하여 熊津이 眞氏와 緣故가 있는 領域이었다는 事實도 밝히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眞氏의 千佛婢像이 熊津과 같은 方面으로 볼 수 있는 鳥致院邑에서 發現했으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拙稿 「百濟眞氏와 任那問題의 本質-應神天皇의 拙稿」의 概要를 적어보면 첫째로 百濟王家는 車嶺山脈北인 稷山을 根據로 하여 京畿平野一帶를 領域으로 하고 百濟眞氏는 車嶺山脈南인 熊津을 根據로 하여 咸悅을 포함한 內浦平野, 金堤를 포함한 萬頃平野를 領域으로 하였다. 그리고 百濟木苴氏는 역시 車嶺山脈南인 木川을 根據로 하여 鎭川·陰城方面을 領域으로 하였다.

이 三姓이 百濟國의 核心的인 三姓으로서 稷山の 余氏와 熊津의 眞氏가 짝은 姻戚關係로 맺어졌으며 熊津의 眞氏와 木川의 木氏가 또한 짝은 姻戚關係로 맺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北에서는 313年, 314년에 걸쳐서 樂浪·帶方이 高句麗軍에게 滅亡당하였다. 그리고 그 高句麗軍은 다시 慕容氏의 北燕의 攻擊을 받아 南

下할 形勢에 있었고 한편 南에서는 新羅가 國歌熊勢를 갖추고 西쪽으로 加耶諸國을 威脅하고 있었다.

따라서 百濟로서는 北으로부터 南下하는 高句麗의 勢力은 주로 車嶺以北을 領域으로 하고 있었던 王家가 막고 西쪽으로 發展하려는 新羅의 勢力은 주로 車嶺南의 眞氏와 木氏가 막아야 했다.

이것이 大体로 360년대의 形勢로서 高句麗는 故國原王代이며 新羅는 奈勿王代, 百濟는 近肖古王代였다.

이와같은 形勢에 本格的으로 불이 붙은 것은 369년 3 월로서 이때에 新羅의 侵攻에 威脅을 느낀 加那諸小國의 王들이 百濟의 近肖古王에게 使臣을 보내어 百濟와 兄弟의 關係를 맺을 것을 提議하고 新羅의 侵攻으로부터 保護해 주도록 要請하였다.

이와같은 提議와 要請을 받아들인 近肖古王은 車嶺南의 眞牟와 木羅氏(=木芻氏)로 하여금 洛東江方面으로 出兵하여 加耶諸國을 保護하게 하였다. 眞牟氏와 木羅氏의 軍隊는 卓淳(大邱)에 集結하여 新羅를 치고 加耶地方을 平定하였다. 이 軍隊는 南海岸을 돌아 馬韓南部의 殘余小國을 平定하였다. 이때 近肖古王과 近仇首王의 父子도 軍隊을 이끌고 意流村에서 만나 크게 戰勝의 祝賀宴을 가졌다.

近肖古王과 眞氏의 族長은 함께 百濟國으로 돌아와 辟支山에 올라가 侯王으로서 國王인 君主에게 衷誠의 盟誓를 하고, 다시 古沙山에 올라가 封爵에 대한 君主로서 侯王에게 盟誓를 하였다. 石上神宮의 七支刀는 이와같은 盟誓에 대한 信標로서 同年 369년 5월에 製作하여 侯王인 倭王에게 준 것이다. 七支刀의 「倭王旨」는 물론 百濟王의 倭王으로서의 倭王旨이며 이 「倭王旨」는 「眞淨」으로서 「眞淨」을 三國史記에서는 「王后의 親戚」이라고 전하였다.

이것이 369년 己巳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며 이해 가을 9월에 高句麗의 故國原王은 步騎二萬을 이끌고 雉壤에 駐屯하여 民戶를 侵奪하였지만 이것은 이해 봄 3월에 있었던 百濟勢力의 新羅討伐과 加耶諸國平定에 대한 高句麗로서의 報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近肖古王은 太子를 시켜 雉壤에 이르러 高句麗軍을 急擊하여 五千余를 죽이고 虜獲을 將士에게 나누어 주고 겨울 11월에는 漢水南에서 大閱을 하였는데 黃色旗幟

를 使用하였다. 黃色旗幟는 皇帝의 旗幟로서 이것은 이해 봄에 있었던 眞氏를 侯王으로 封한 일과 關係가 있었던 것이니 侯王에 대한 皇帝이며 皇帝의 旗幟로서의 黃色旗幟이다. 그리고 黃色旗幟를 使用한 大闕이었으니 이 大闕 또한 皇帝로서의 大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다음해인 371년 겨울에 高句麗軍이 大舉 南侵한다는 소식을 듣고 近肖古王은 太子와 함께 精兵三萬을 이끌고 溟河에서 이것을 무찌르고 平壤城을 攻擊하여 高句麗의 故國原王이 流矢에 맞아 戰士하는 大勝利를 거두었다. 그리고 돌아와 즉시 舊都稷山에서 新道漢山으로 移都하였다.

그러나 그後 20년만인 391년 辛卯 5월에 故國壤王이 죽고 卽位한 廣開土王을 가을 7월에 南으로 百濟를 쳐서 十城을 빼앗고 겨울 10월에는 百濟의 關爾城을 攻略하였다. 이 關爾城은 四面이 峭絶하고 海水가 環繞하는 要害이었기 때문에 王은 軍을 七道로 나누어 20日 攻擊하여 陷落시킬 수 있었다. 廣開土王의 關爾城攻擊에 대해서 百濟救援을 위하여 倭軍이 參戰하였지만 이 倭軍은 물론 洛東江流域의 加耶를 根據로 하고 있었던 百濟王家의 侯王으로서의 倭王의 軍隊였던 것이다. 이것이 廣開土王碑文의 「倭」의 실체이다.

이 「倭」의 勢力은 396년 丙申에 百濟國에서 正式으로 分國하여 「倭國」을 稱하고 「倭國王」을 稱하게 된다. 이해에 廣開土王은 大軍을 派遣하여 漢江을 건너 漢山王都를 攻擊, 百濟王의 降伏을 받으면서 倭王과의 斷交를 强要했고, 百濟王은 이 强要에 屈하여 斷交를 盟誓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倭王은 百濟를 威壓하며 太子腆支를 人質로 잡고 湖南方面의 王家의 直轄領을 沒收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倭王의 大軍은 新羅에 侵入하여 新羅를 臣屬시켰기 때문에 廣開土王은 400년 庚子에 五萬의 步騎로 任那加羅를 攻擊하였다. 그러나 倭王의 勢力은 이에 屈하지 않고 新羅와 百濟에서 人質을 잡고 404년 甲辰에 大舉 帶方界에 北上하였다. 그러나 高句麗와의 이 決戰에서 大敗한 倭王의 勢力은 이해 404년末부터 405年初에 걸쳐서 바다건너 日本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應神과 그의 實弟인 履中の 南渡東征이다

阿直岐와 王仁등이 日本으로 건너간 것도 404년末에서 405年初까지의 사

이에 있었던 일이다.

日本歷史는 日本書紀가 전하듯이 神武王이 南九州의 日向地方에서 大和地方으로 東征한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404년末에서 505년초에 걸쳐서의 應神의 南渡東征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그 이전 379년 3월부터 百濟王과 侯王으로서 倭王이었고 그리고 396년에 廣開土王의 強要에 의하여 百濟에서 分國한 것이다.

결국 이와같은 歷史事實은 百濟眞氏의 歷史를 밝힘으로서 알게되는 것인데 百濟眞氏-百濟眞牟氏 千佛碑像이 鳥致院에서 發現했을 뿐 아니라 그 原位置가 公州北 16杆地點인 生川里 近處였다는 事實에서 百濟眞氏의 根據가 熊津이었고 그 領域이 車嶺南이었다는 바가 확실해지는 것이다. 要컨데 刻記銘을 가진 千佛碑像은 史料로서도 第一等史料로 보아야 할 것이다.



## 跋

지난해에 “郷土史料” 第 1輯을 刊行하면서도 아쉬운 生覺을 禁할수 없었으나 今年에 “郷土史料” 第 2輯을 發刊하면서도 亦是 아쉬운 生覺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制限된 豫算의 貧弱性 때문에 充分한 素材를 살리지 못한 點이니 이 일을 企劃하고 進行한 者로서 안타까운 마음 끝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資料調査와 原稿作成에 애써주신 분들에게 未安하고 悚懼스러운 마음 또한 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機會는 또 있는 것이니 이제라도 企劃하고 準備하여 來年度에 〈燕岐郡 文化財大觀〉 이라고 해서 더욱 훌륭한 史料輯을 刊行해 보겠다는 새로운 覺悟로 今年의 아쉬운 마음을 달랠가 합니다.

끝으로 資料蒐集과 原稿作成에 心勞해주신 분들에게 感謝를 드리며 來年度에 企劃하고 있는 〈燕岐郡 文化財大觀〉 刊行에도 繼續하여 좋은 資料를 發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85年 10月 日

鳥致院文化院 事務局長 鄭 興 錫



## 發掘調查

洪 淳 珪 燕岐郡 財務課長  
錦南面 大朴里 支石墓 2基  
南 面 方丑里 立 石 1基  
安 滿 洙 燕岐郡 錦南面 副面長  
錦南面 新村里 支石墓 1基  
錦南面 新村里 男根石 1基  
黃 秉 國 燕岐郡 錦南面長  
黃 善 泰 烏致院警察署 錦南支署長  
錦南面 永垈里 栗寺址 石製幢竿支柱  
悔隱大師浮屠 吳 浮屠碑

### 發掘調查 및 報告書 編著

金 在 鵬 史學家 (燕岐郡 東面 內板里)  
錦南面 鳳起里 支石墓 8基  
南 面 月山里 立 石 1基  
東 面 龍湖里 出動山城 其他

## 鄉 土 史 料

1985年 10月 1日 印刷

1985年 10月 10日 發行

發行處：烏 致 院 文 化 院

發行人：李 基 鳳

編輯人：烏致院文化院事務局

印刷處：日 新 印 刷 社

烏致院邑 貞洞 72

☎ ②2243 ②7001

非 賣 品

